

예술과 만남

02

2017 February + March vol. 124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03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Cover Model
초랑 린
바이올리니스트

Focus

04 / Focus Image
시대의 비르투오소 '초랑 린'

06 / Focus Column
대만, 호주, 미국 거쳐
세계로 나아간 현의 명인
바이올리니스트 초랑 린



Stage

12 / 주목 이 공연 I
또 한번의 도약 앰슬루트 시리즈 I
〈성시연의 브람스〉

16 / 주목 이 공연 II
사랑이 음악에게 속삭이다
경기필 발렌타인 콘서트

18 / 주목 이 공연 III
책과 음악으로 세상을 잇는 사랑방
화양연화 시즌2

20 / 주목 이 공연 IV
경기도문화의전당 최장수 프로그램
〈브런치 콘서트〉의 이유있는 변신

22 / 과감하게 골라보기

24 / 다시 읽고 넘어갈 순간
2016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결산 리뷰
관객과 예술가의 동반성장을 실현하다



Interview

28 / GGAC가 만난 사람 I
진실함과 순수함에서 시작된 거장성
첼리스트 조영창

32 / GGAC가 만난 사람 II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들에게 빠질 시간
브래들리 던 & 다이애나 디가모

36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터뷰
새로운 시즌을 여는 이 때,
경기도문화의전당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올해,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나요?



Story

42 / 예술, 수작을 걸다 I
오늘부터, 친근한 클래식

46 / 예술, 수작을 걸다 II
애민愛民과 풍자諷刺를 이야기하다

50 / 예술과 인문학
삶, 죽음 그 사이의 예술

54 / 예술 즐기기



G.Talk

55 / 예술, 더하기

56 / GGAC 뉴스

58 / 공연일정



예술과 만남

02

2017 February + March vol. 124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03

Editor's Letter

'2017년, 아름다움 +1을 획득하셨습니다.'

새해 건넸던 인사 중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말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이 먹는 건 서러운 일이지만 사실 그리 싫은 것도 아니라는걸요. 멋모를 십 대와 뜨거운 이십 대를 지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 지금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아... 그렇다고 꼰대가 되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이는 경계해야겠지요, 예전에는 남들과 비교하거나 내가 세운 기준에 맞춰 '조금 더'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몰아쳤던 저를 안아주고 싶네요.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는 내려놓는 연습과 함께 나만이 지닌 아름다움을 잘 가꾸고 싶습니다. 여러 인생 선배님들께서 이 글을 보시면 뭐라 하실지 부끄럽지만 현재의 저는 절 이렇게 바라보고 있네요.

이번 호를 준비하면서 거장이라 불리는 많은 예술가들을 만났습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기에 자신이 이뤄낸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이 크실 것 같았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명성이 주는 기쁨보다 그들이 추구해온 작은 가치들을 소중히 지켜온 것에 대한 기쁨이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작은 가치들이 오늘날 그만이 지닌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 것이겠죠. 여러분께서 무대 위 수많은 예술가들을 만나실 때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이런 가치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나만의 아름다움과 멋짐이 더해져 우리도 우리만의 행복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겠지요. 우리 독자님들께 전합니다. "2017년, 멋짐 +1을 획득하셨군요!"

발행인 | 정재훈

편집인 | 정재훈

편집장 | 최현희

기획 · 취재 · 편집 | 조신애

발행처 |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Tel 031-230-3200 / Fax 031-230-3469

기획 · 사진 · 디자인 | 반디컴

시대의 비르투오소 ‘초량 린’

올해도 세계적인 거장들이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찾는다. 거장의 아름다운 예술혼과 만나는 <세계유명연주자 시리즈> 첫 무대에 ‘초량 린’이 오른다. 눈부신 테크닉과 순수함이 공존하는 거장, 사색하는 연주자, 따뜻한 음악을 표현하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평가받는 그의 무대가 관객을 설레게 한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이올리니스트 초량 린의 음악 행보는 전 세계를 아울렀다. 디트로이트, 토론토, 달라스, 휴스턴, 내쉬빌, 샌디애고, 로스앤젤레스 실내관현악단과 함께 솔로이스트로 활동하며 수 개의 대륙을 오갔다. 유럽에서는 버건 필하모닉, 스톡홀름 필하모닉, 뮌헨 필하모닉, 영국 실내관현악단과 활동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홍콩 필하모닉, 싱가포르 심포니, 말레이시아 필하모닉, 방콕 심포니와 공연을 진행하였다. 솔로이스트를 넘어 열정적인 실내악 연주자로, 나아가 지휘자로서 음악 영역을 넓혀온 그의 행보는 놀라움을 자아내며, 고전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는 그의 탁월함에 관객은 숨죽인다. 이런 그가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찾는다. 양상블에서 기대되는 가장 친밀한 음악적 대화와 경기필하모닉의 색다른 면모를 이끌어 낼 그의 카리스마를 고대하게 한다. 한 명의 비르투오소로부터 나오는 음악적 영감과 그 황홀함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대만, 호주, 미국 거쳐
세계로 나아간 현의 명인

바이올리니스트 초량 린

초량 린(57)은 대만계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다.
영어로는 Cho-liang Lin, 중국어로는
린 초량(林昭亮)으로 표기한다. 클래식
음악팬들에게는 소니(CBS)와 낙소스 등 여러
레이블에서 남긴 음반들로 익숙한 이름이다.

글 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1960년 대만의 신주에서 태어났다. 신주는 수도 타이베이 남
쪽으로 70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으로 '대만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린다. 그의 아버지는 그곳의 연구소에 다니는 핵물리학자였
다. 초량 린은 다섯 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했다. 이웃집에서 들
리는 바이올린 연습 소리에 부모님을 졸라 바이올린 장난감을
선물 받은 게 시작이었다. 흥미로 시작한 바이올린은 일생의 동
반자가 됐다.

뛰어난 재능을 선보인 그는 해외에서 공부를 계속할 필요성
을 느꼈다. 일찍이 12세 때 홀로 호주로 건너가 시드니에서
3년간 공부했다. 예뻐 후바이의 제자였던 로버트 피클러가 그
의 스승이었다. 호주에서 이차크 펄만의 마스터클래스를 참관
한 13세 소년 초량 린은 펄만의 스승인 도로시 딜레이에게 바이
올린을 배우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딜레이는 길 샤함, 사라 장,
미도리 등 수많은 명 바이올리니스트들을 키워낸 줄리아드 음
악원의 명 교수다.



초량 린은 15세 때 다시 홀로 뉴욕으로 떠난다. 도로시 딜레이에게 오디션을 보고 당당히 합격한 그는 6년 동안 딜레이에게 배운다. 그는 19세 때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을 연주하며 뉴욕에 이버리 피셔 홀에서 데뷔했다. 이후 그의 커리어는 날개를 단다. 링컨센터의 모스틀리 모차르트 페스티벌에서도 처음 연주했고, 20세 때는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과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했다. 이후 보스턴 심포니, 콘서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등 세계 유수의 악단들과 함께 연주하는 날들이 이어진다. 그의 분주한 연주 스케줄은 오늘날까지 계속됐다.

그는 후진을 키우는 교육 활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모교인 줄리아드 음악원은 31세의 초량 린을 교수로 초청했다. 2006년에는 라이스 대학의 교수로 임용됐다. 라호야 여름 음악제와 홍콩 국제 실내악 페스티벌의 음악감독, 타이완 국립교향악단 음악캠프와 유스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역임하기도 했다. 1997년에는 대만 역사상 최대의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인 타이페이 국제음악제를 설립해 연인원 5만 3천 명의 청중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초량 린은 동시대 음악의 옹호자이기도 하다. 존 하비슨, 크리스토퍼 라우즈, 탄 둔, 존 윌리엄스, 스티븐 스티키, 에사 페카 살로넨, 폴 쇤필드, 존 타워 등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연주했다.

세계적인 대만계 작곡가 고든 친의 작품인 더블 콘체르토를 첼리스트 펠릭스 팬, 자하 링이 지휘하는 샌디에고 심포니와 연주했다. 중국계 작곡가 브라이트 쉹의 'Three Fantasies'를 피아니스트 앙드레 미셸 슈허브와 함께 국회 도서관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지는 라호야 여름 음악제의 음악 감독을 맡은 초량 린을 향해 '듣는 이의 힘을 북돋우면서 자극을 주는 음악가'라고 평했다. 음악 감독으로서 그의 능력은 첸 이, 칙 코리아, 필립 글래스, 존 하비슨, 마크 오코너, 에사 페카 살로넨의 작품 초연에 참여하면서 더욱 빛을 발했다.

초량 린은 그동안 소니 클래식과 데카, 온딘, BIS 등 여러 레이블에서 음반을 발매했다. 그의 음반들은 두 개의 그래미 상 후보에 올랐

을 뿐 아니라 그라모폰의 '올해의 음반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소니 클래식을 통해 발매된 그의 음반은 모차르트에서 스트라빈스키 협주곡에 이르는 일반적인 바이올린 레퍼토리뿐 아니라 브람스, 슈베르트, 차이코프스키, 드뷔시, 라벨의 실내악 연주를 망라한다. 데카 레이블로 휴 올프의 지휘 아래 세인트 폴 챔버 오케스트라와 샤론 이즈빈과 함께 아론 제이 커니스의 바이올린과 기타 협주곡을 녹음했고 BIS 레이블로 첸 이의 콘체르토 민속 음악 모음곡(Folk Dance Suite)을 발매했다. 그가 온딘 레이블로 발매한 크리스토퍼 라우즈의 협주곡 앨범은 뉴욕 타임즈로부터 최고의 클래식 음반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피아니스트 헬렌 황과 함께 녹음한 게오르크 틴트너의 곡을 낙소스를 통해 발매했다.

그의 악기는 1715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다. '티티안(Titian)'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이번 '세계유명연주자 시리즈'에서는 단지 바이올린 독주자로서뿐만 아니라 앙상블의 일원, 지휘자로서의 모습까지 초량 린의 여러 가지 면모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 기대된다. 초량 린은 드보르자크 소나티나 G장조 Op.100과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7번에서 피아니스트 이지원과 호흡을 맞춘다. 초량 린의 독주자로서의 거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지원 및 첼리스트 조영창과 함께 연주하는 차이콥스키 피아노 트리오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하며'에서는 실내악의 일원으로서 동료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엿볼 수 있다(3월 3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비발디 '사계'와 브람스 교향곡 2번에서는 초량 린의 앙상블 리더와 지휘자로서 영도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한 음악가의 여러 측면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무대는 그리 흔치 않다(3월 4일,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세계유명연주자 시리즈
초량 린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차이콥스키

피아노 3중주 A단조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하며’

1880년 후원자 폰 메크 부인은 차이콥스키에게 피아노 트리오를 써보지 않겠냐고 권했다. 차이콥스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피아노 트리오세 악기의 음색이 융화되기 어려워 듣는 것만으로도 형벌과도 같습니다.”

이듬해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이 파리여행 중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니스에 머물고 있던 차이콥스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파리로 향하면서 피아노 트리오를 구상했다. 탁월한 피아니스트였던 고인에게 피아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작품을 바치려고 했다. 거기엔 폰 메크 부인의 소망을 들어주려는 배려도 포함되어 있었다.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은 저명한 러시아의 작곡가 안톤 루빈슈타인의 친동생이었다. 안톤 루빈슈타인은 파리에서 리스트에게 배웠고, 안톤과 니콜라이는 모두 베를린에서 지그프리트 텐에게 작곡을 배웠다. 안톤은 러시아 최초의 조직적인 음악교육기관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을 설립했고 수많은 교향곡과 협주곡, 스무 편의 오페라를 썼던 작곡가였다. 니콜라이는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을 설립한 행정가이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다. 차이콥스키가 피아노 협주곡 1번 초연을 니콜라이에게 의뢰했지만 연주 불가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스 폰 빌로가 초연할 수밖에 없었다. 빌로를 비롯해 명 피아니스트들이 협주곡 1번을 많이 연주하게 되자 니콜라이 루빈슈타인도 차이콥스키에게 사과

를 하기에 이르렀다. 차이콥스키도 선배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예전처럼 존경하게 되었다. 루빈슈타인이 1878년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하며 호평받자 작품의 주가도 올라갔다.

그러한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이 1881년 3월 파리에서 숨을 거둔 것이다. 선배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작곡에 박차를 가한 차이콥스키는 1882년 1월 피아노 트리오를 완성했다.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하며’라는 부제가 붙은 이 피아노 트리오의 두 개의 긴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가품으로(Pezzo Elegiaco)’ 연주하도록 지시된 첫 악장은 조용히 울리는 피아노 분산화음의 리듬을 타고 첼로와 바이올린이 슬픈 선율을 노래한다. 차이콥스키 특유의 우울함에 우아한 탐미성과 비가적인 분위기가 겹쳐진다.

2악장은 주제와 변주를 거쳐 코다로 끝나는데 거기에는 루빈슈타인과의 갖가지 추억이 배어 있다. 2악장이 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3악장 형식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1873년 차이콥스키가 루빈슈타인과 함께 모스크바 교외 레비 언덕을 산책했을 때 그곳 농민들이 노래와 춤으로 환대해 주었다 한다. 그때의 즐거웠던 추억의 회상이 담겨있는 주제는 모든 변주곡 가운데서도 황홀

하게 느껴진다. 1부인 주제와 변주 1~11까지 모스크바 교외에서 들었던 농민들의 노래에서 마주르카, 왈츠 등 다양한 변주를 노래한다.

2부 마지막 변주와 코다는 자체만으로 하나의 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실질적인 3악장으로 볼 수 있다. 힘차고 웅장한 변주로 시작하며 마지막에 피아노가 장송행진곡 같은 리듬을 연주하며 막을 내린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1840 ~ 1893)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안토니오 비발디는 협주곡이라는 형식을 빌려 봄, 여름, 가을, 겨울—즉 4계절의 자연과 거기서 어우러지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렸다. 빠른 템포의 양단악장 중간에 느린 중간 악장을 끼워 넣은 3악장 구성이다.

곡 하나하나에는 비발디 자신의 손으로 소네트를 달았고 또 악보의 요소마다 그 대목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석하고 있다. 따로 해설이 필요 없는 표제음악의 효과를 내고 있다. 보통 박수는 겨울의 마지막 3악장이 끝날 때까지 치지 않는다.

‘사계’는 비발디 화성과 창의를 시도(II cimento dell'armonia e dell'invenzione)에 실린 12개의 협주곡 중 첫 4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1625년 작곡된 이 곡은 오늘날 가장 많이 연주되는 클래식 음악에 속한다. 각 음악 매체들이나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중 1위를 여러 번 차지했다. 당연히 많은 연주자들이 이 곡을 연주하고 있고, 음반으로 나와 있는 것만도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심각하지 않은 쾌활한 울림, 주어진 설명이 쉽게 이해되는 자연현상의 묘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준다.

‘사계’ 중 봄 1악장은 기다렸던 봄이 와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새들의 모양을 묘사했다. 새는 노래하며 봄 인사를 한다. 산들바람 속에 샘물이 흐른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친다. 폭풍우가 지난 뒤, 새들은 다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바이올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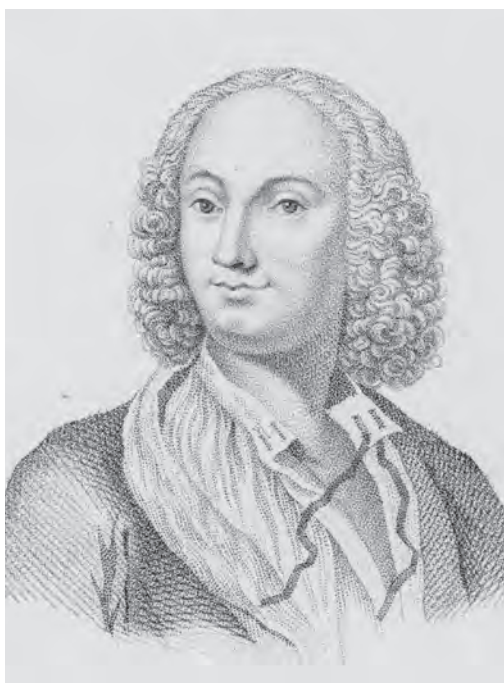
새의 노래를 묘사한다. 2악장에서 바이올린은 잠에 빠진 목동을 나타내며, 비올라는 목양견을 형상화한다. 마지막 3악장은 흥겨운 춤판이다. 목동이 부는 피리에 맞춰 요정이 춤을 춘다.

‘여름’ 1악장은 강렬한 태양 아래 지친 사람과 가축, 나무와 풀들을 묘사한다. 독주 바이올린이 빠꾸기 울음소리를 흉내 낸다. 북풍이 몰아치는 장면은 전체 합주로 강하게 연주되고, 목동의 눈물은 다시 독주 바이올린의 애잔한 선율로 표현된다. 2악장에서 독주 바이올린이 쉴 수도 없는 목동의 지친 모습을 묘사한다. 반주로 등장하는 바이올린 합주는 달라붙는 파리떼를 형상화한다. 그러다가 다른 현악기들이 일제히 가세하면서 천둥 치는 장면을 그린다. 3악장에서 양치기의 걱정은 현실이 된다.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 우박이 쏟아져 다 자란 보리 이삭, 옥수수과 꽃꽂이 서 있는 콩들을 부러뜨린다. 트레몰로로 쏟아지는 음계에 안절부절못하는 베이스음형이 들린다. 여기서 분주한 손놀림의 연주자들을 볼 수 있다.

수확의 계절 ‘가을’ 1악장은 잔치가 벌어지는 마을을 묘사했다. 독주 바이올린은 술 취한 걸음걸이다. 사람들이 잠에 빠진 2악장에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진다. 3악장에서는 다시 활기가 넘친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온다.

‘겨울’ 1악장은 야외의 풍경이다. 뽕뽕 얼어 있는 차가운 눈 속이 생각난다. 2악장은 따스한 실내다. 불 곁에서 보내는 시간이다. 바이올린의 피치카토가 차가운 겨울비를 나타내고, 독주 바이올린이 감미로운 멜로디를 연주한다. 가수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에 이 악장의 편곡이 사용됐다. 3악장은 독주 바이올린이 얼음 위를 걷다가 힘차게 달려간다.

‘사계’ 중 가장 격렬한 ‘겨울’은 비발디의 모든 작품을 통틀어 ‘백미’라 할 수 있다.



안토니오 비발디(1678 ~ 1741)

브람스

교향곡 2번 D장조 Op.73

1876년, 오랜 시간 다듬어 발표한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은 호평을 받았다. 당대의 지휘자 한스 폰 뷔로는 ‘베토벤의 제10교향곡’이라 격찬했다. 브람스는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듬해인 1877년 6월 오스트리아 남부 휴양도시 페르차하에 머물며 두 번째 교향곡의 작곡에 착수했다. 남부 오스트리아의 알프스 산들이 둘러싼 이 마을을 마음에 들어 한 브람스는 그 후 2년 동안 이곳으로 피서를 왔다. 페르차하의 좋은 환경, 그리고 교향곡 1번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브람스의 이야기는 새로운 교향곡의 작곡을 재촉했다. 그래서인지 교향곡 1번과 달리 두 번째 교향곡 작곡의 진도는 상당히 빨랐다. 이 교향곡의 정식 초연은 1877년 12월 9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파트악보를 사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오케스트라의 연습시간이 충분치가 못했기 때문에 초연은 부득이 12월 30일로 연기되었다.

초연 당일, 빈 무지크페라인잘에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한스 리히터의 악보는 브람스가 손으로 쓴 초고였다. 아직 악보가 인쇄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브람스는 평론가 한슬릭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의 교향곡 2번에 대해 “밝고 사랑스러운 곡”이라고 표현했다. 빈 사람들의 기질에도 맞았던 이 곡의 초연은 3악장을 반복해서 연주할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브람스를 불러내는 커튼콜은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다 한다.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지만, 브람스의 교향

곡 2번은 교향곡 1번과 매우 대조적이다. 우선 교향곡 1번에 있는 복잡함과 큰 규모는 찾아볼 수 없다. 교향곡 2번에는 밝고 아름다운 페르차하와 조용하고 온화한 빈 근교의 리히텐탈에서 보낸 브람스의 생활이 묻어난다. 교향곡 1번에서 표방했던 ‘암흑에서 광명으로’나 ‘고뇌 뒤의 환희’같은 전체 곡상의 추이를 2번에서는 분명히 내세우지 않았다. 부드럽고 온화한 인간적인 따스함과 즐거움, 그리고 눈부신 자연의 밝은 숨결 때문에 이 곡을 두고 ‘브람스의 전원교향곡’이라 부르기도 한다.

낭만주의 음악에서 자연을 상징하는 요소들인 호른 소리, 새 소리 같은 플루트나 클라리넷 음이 풍성한 화음 속에 나타난다.

브람스의 친구인 외과의사 테오도르 빌로트는 이 곡을 듣고 브람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행복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작품 전체에 넘치고 있네. 그대의 완벽주의가 나타나 있고, 맑은 생각과 따스한 감정이 무리 없이 흐르고 있었지. 페르차하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

브람스는 페르차하에서 바이올린 협주곡,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등을 작곡했다. 교향곡 2번과 공통분모로 묶을 수 있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바이올린 협주곡은 교향곡 2번의 마지막 악장에 사용

하려고 했던 주제 재료를 활용하기도 했다.

1악장에서 나타나는 렌틀러나 왈츠의 분위기 때문에 4곡의 브람스 교향곡 가운데 가장 빈(Wien)풍이라는 얘기도 납득이 간다. 분명히 양식과 성격이 다르고, 곡에서 풍기는 분위기도 대조적이지만, 노작이었던 교향곡 1번과 비교했을 때도 처지지 않는 걸작이 바로 브람스의 교향곡 2번이다.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도입부에 대해 음악학자 헤르만 크레츠머는 “저물어 가는 태양이 숭고하면서도 맑은 빛을 던지고 있는 즐거운 풍경”이라고 그럴 듯하게 묘사했



요하네스 브람스(1833 ~ 1897)

다. 저음현의 기본 동기에 목관과 호른이 부드럽고 목가적인 온기를 띠고 제1주제를 연주한다.

이후 바이올린이 고풍적이고 명랑한 새로운 선율을 표현하고 비올라와 첼로가 제2주제를 연주한다.

제시부가 끝나면 발전부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호른의 제1주제가 나타나서 여러 갈래로 전개된다. 재현부에서는 오보에가 제1주제를 연주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 악기로 옮겨져 연주된다. 얼마 후 제2주제가 비올라와 첼로에 의해 나타난다. 코다는 제1주제로 시작돼 여러 갈래의 발전을 보이다가 사라지듯이 조용히 끝난다. 때로는 장엄하면서 그러나 비극적인 감정이 저류로 흐른다. 이런 감정은 낭만적인 서정 속에 녹아 있다.

2악장 아다지오 논 트로포. 1악장의 유쾌한 기분과는 대조적으로 적적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먼저 제1주제가 나타나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인다. 그 후 목관에 의해 밝고 귀여운 새 선율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제2주제다. 이 주제가 현악기와 관악기에 의해서 응답하는 식으로 반복되고 나서 제1바이올린이 제3주제라 할 새로운 선율로 연주한다. 재현부를 지나 팀파니의 조용한 울림이 있는

뒤 고요히 마무리된다. 전체적으로 느린 템포의 노래하는 듯한 멜로디가 중심이다. 3개의 주요 멜로디가 제각기 특징을 보이며 조용히 우수에 잠기는데, 애정어린 친밀감도 함께한다.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빠르고 아름다운 이 악장은 론도 형식을 따르면서도 스케르초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2악장에서 볼 수 있었던 침울한 기분은 사라지고 유쾌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소박하고 매혹적인 선율은 경쾌하고도 비할 바 없이 아름답다.

먼저 오보에가 소박한 춤곡 풍의 선율을 연주한다. 희롱하는 듯한 현악기의 가벼운 선율이 감정을 고조시키면 이에 이어 고요한 목관악기의 연주가 나타나 주제를 명상적으로 읊조리듯 이끌어간다.

4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한슬릭의 말과 같이 이 악장에서는 모차르트 악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듯한 기쁨과 경쾌한 맛이 흐른다. 브람스의 관현악 가운데 축제의 환희를 가장 빼어나게 표현한 부분으로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무한한 기쁨과 행복감에 찬 악장이다.



신선한 기획으로 클래식팬들을 사로잡은 경기 필하모닉이 창단 20주년을 맞은 올해 '애플루트 시리즈'를 선보인다. 경기필만의 사운드를 찾고 자 정통 교향악 레퍼토리에 도전하는 것. 그 첫 무대로 오는 3월 31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성시연의 브람스〉를 올린다. 이 날의 연주 중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이 단연 돋보인다. 1868년에 완성된 이 대작은 브람스가 남긴 모든 작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서 그에게 국제적 명성을 안겨준 화심의 역작이었다. 당대 최고의 비평가 에두아르트 한슬리크는 이 작품을 가리켜 “가장 순수한 예술적 수단, 즉 영혼의 따스함과 깊이, 새롭고 위대한 관념, 그리고 가장 고귀한 본성과 순결로 일궈낸 최고의 작품”이라고 추켜세우면서 “바흐의 〈b단조 미사〉와 베토벤의 〈장엄미사곡〉을 제외하면 이 분야에서 이 곡에 비견될 만한 작품은 없다”고 극

찬했다. 모두 일곱 곡(악장)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독일어 가사에 의한’ 레퀴엠이라는 점이다. 통상 ‘진혼곡’으로 번역되는 ‘레퀴엠’은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망자(亡者)를 기리는 미사’를 위한 음악이다. 그런데 미사의 식순에 따른 일정한 라틴어 가사에 기초하는 일반적인 ‘레퀴엠’들과는 달리, 이 〈독일 레퀴엠〉의 가사는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서 브람스가 선별적으로 발췌한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결과 이 작품은 가톨릭 전례(典禮)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그것과 직접적 연관성은 가지지 않는 ‘연주회용 종교곡’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렇다면 브람스는 왜 이렇게 독특한 ‘레퀴엠’을 작곡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유래와 작곡 과정을 찬찬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 한번의 도약 애플루트 시리즈 I 〈성시연의 브람스〉

글 황장원 음악칼럼니스트



슈만의 최후와 클라라

1856년 7월 29일, 브람스는 본 근교 엔데니히의 요양원에 들어섰다. 잠시 후 눈앞에 펼쳐진 광경, 즉 비극적 생애를 마감하고 침상에 조용히 누워있는 슈만 선생의 주검을 대하는 그의 자세는 비교적 담담했다. 지난 몇 년간 선생이 겪었던 고통을 지켜봐왔기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고개를 들어 맞은편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죽음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비탄에 젖은 클라라가 앉아 있었다. 브람스가 평생 숙고했던 ‘죽음’이라는 화두가 그의 뇌리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다. 하지만 신중한 브람스는 그 화두에 곧바로 달려드는 대신, 평소 탐독해온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죽음에 관한 상념들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그리고 ‘죽음’을 다룬 첫 작품인 ‘장례 찬가’(Op.13, 1858)가 성공을 거두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레퀴엠’을 쓰고픈 마음을 내비쳤다. 불씨는 데트몰트에서 피어올랐다. 그곳의 궁정음악가로 일하는 동안 브람스는 케루비니의 ‘레퀴엠’을 연구하면서 작품의 오프닝을 바이올린 파트가 침묵하는 깊고 어두운 음색의 오케스트라로 장식한다는 착상을 떠올렸고, 그 착상은 훗날 <독일 레퀴엠>의 제1곡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작곡된 것은 지금의 제2곡이었는데, 그 기원은 뒤셀도르프에서 클라라와 함께 즐겨 연주하곤 했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였다. 이 곡은 얼마 후 <피아노 협주곡 제1번>으로 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외된 완만한 스케르초 악장이 ‘장송행진곡’ 풍의 제2곡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1860년 여름, 고향 함부르크로 돌아온 브람스는 3년 전에 착수했던 ‘두 개의 모테트’(Op.29)를 완성한다. 바흐를 정점으로 하는 모테트의 전통에 경의를 표한 이 작품에서 그는 ‘신의 자비에 의지하여 위안을 얻는다’는 개념을 확립했다. 그리고 슈만의 사망 5주기였던 1861년, 작곡은 큰 진전을 보게 된다. 단악장에서 출발한 악곡의 규모가 4개 악장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바야흐로 <독일 레퀴엠>의 구상은 구체화되어 가고 있었다.



또 하나의 슬픈 사건

하지만 그 이듬해, 작곡은 뜻밖에 소강기로 접어든다. 고향인 함부르크에서 보직을 얻으려던 소망이 좌절되자 빈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빈에서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 분주한 일상에 쫓기며 지내는 동안 예의 ‘무겁고 어두운 작품’에 대한 생각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러던 그로 하여금 서랍 속의 악보를 다시 꺼내도록 한 것은 또 하나의 슬픈 사건 때문이었다. 1865년 초, 불길한 전보 한 통이 날아들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만사를 제쳐두고 부랴부랴 함부르크로 달려갔다. 그러나 고향집에 도착한 그를 맞이한 것은 이미



싸늘히 식어버린 어머니의 주검이었다. 사랑하는 노모의 임종마저 지키지 못한 브람스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도 좀처럼 그칠 줄 몰랐고, 빈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 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멍하니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올 때면 피아노를 통해 북받치는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브람스는 클라라에게 탄식으로 가득 찬 편지를 띄웠다. 그제야 그는 9년 전 클라라가 느꼈던 슬픔과 두려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홀로 이 세상에 남겨진 외로움, 생전에 그 사람에게 보다 충실하지 못했다는 후회, 그리고 죽음의 거대한 그늘 아래 신음하는 인간의 무기력함...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자신의 것이 되어 있었다.

압도적인 성공과 영예

그는 ‘레퀴엠’을 작곡하면서 위안을 얻고자 했다. 작업은 노모의 사후 9주가 지난 1865년 4월에 재개되었고, 그는 어디를 가든 악보를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며 틈틈이 작곡에 매달렸다. 그 해 ‘바리톤 솔로와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여섯 개의 악장’이라는 설계를 확정했고, 이듬해 2월부터 4월에 걸쳐 카를스루에에서 바리톤 솔로가 등장하는 제3곡을 푸가의 앞까지 쓴 후, 5월에는 장차 ‘19세기 후반에 작곡된 가장 위대한 푸가’로 칭송받을 후반부를 완성했다. 계속해서 여름에는 스위스에서 신비로운 제1곡과 평화로운 제4곡을, 8월에 바덴바덴에서 나머지 곡들을 완성 하여 작업을 일단락 지었다. 마침내 6악장 구성의 〈독일 레퀴엠〉이 탄생했던 것이다. 이 작품은 1867년 12월 1일, 빈 악우협회가 추진한 슈베르트 기념 음악회에서 요한 폰 헤르베크의 지휘로 첫 선을 보였다. 다만 이때는 전반부 세 곡만 연주되었는데, 제3곡의 푸가에서 팀파니 주자가 무분별한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여섯 곡 전체가 공개된 것은 1868년 4월 10일 브레멘에서였다. 성금요일에 진행된 이 공연은 악보를 미리 받아본 현지 교회의 음악감독 카를 마르틴 라인탈리가 성심을 다해 준비해준 덕택에 대성공을 거두었다. 브람스 자신이 지휘를, 친구인 슈톡하우젠이 바리톤 독창을 맡은 것도 주효했다. 객석에는 클라라와 요아힘 등 여러 절친한 친구들과

그의 부친과 계모도 앉아 있었다. 동료 알베르트 디트리히는 이 날의 공연에 대해 “한 마디로 압도적”이었다고 증언했고, 그 누구보다 감격한 클라라는 편지로 찬사를 보냈다.

“저는 당신의 ‘레퀴엠’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곡이 지닌 이상한 힘은 듣는 사람을 깊이 감동시키고야 맙니다. 보기 드물게 훌륭한 작품입니다. 장엄하면서도 시적인 그 음악에는 사람을 흥분하게도 만들고 차분하게도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브람스는 만족하지 못 했다. 그토록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었건만, 그에게는 아직 어딘지 부족해 보였던 것이다. 고심 끝에 그는 온화하고 감미로운 악곡 하나를 첨가하게 된다. ‘근심과 고통에 잠긴 영혼에 대한 위로’를 내용으로 하는 이 곡에 등장하는 소프라노 독창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이미지를 환기한다. 브람스는 어쩌면 제5곡으로 삽입한 이 곡에 그리운 어머니의 음성과 그녀에 대한 추억을 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마침내 7악장 구성으로 완결된 〈독일 레퀴엠〉의 초연은 1869년 2월 18일, 카를 라이네케의 지휘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치러졌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 동안 이 작품은 독일어권에서만 100회 이상 무대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나아가 전 유럽에 브람스의 명성을 전파하는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죽음 뒤에 남겨진 이들에게

주어지는 위로

브람스는 자신이 직접 고른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일종의 ‘죽음에 관한 명상록’을 작성했다. 그는 평소 교회에 나가는 일은 별로 내켜 하지 않았으나 늘 성경을 가까이하며 스스로를 ‘루터교인’이라고 칭했다. 루터교인들은 관습에 따라 죽음에 관해 어떤 기도도 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생명에 관해 연구하고 죽은 이들을 애도하며 스스로의 운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브람스 역시 이 작품을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로 채색하면서도, 동시에 그 속에서 밝은 빛을 이끌어내며 궁극적으로는 희망을 노래하려 했다. 다시 말해 그의 〈독일 레퀴엠〉은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를 위한 음악’으로 쓰였던 것이다.

슈만의 죽음 뒤에 남겨진 클라라와 어머니의 죽음 뒤에 남겨진 자신, 소중했던 두 사람의 죽음에 직면한 브람스가 다음 순간 응시했던 것은 ‘죽음 뒤에 남겨진 자들의 고뇌’였으리라. 사실 ‘죽음의 의미’에 대한 묵상과 깨달음은 산 자들의 몫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덕목이다. 브람스가 ‘작품의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라인탈러의 지적에 대하여, 제목에 쓰인 ‘독일의’라는 단어 대신 ‘인류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는 고백으로 답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이 〈독일 레퀴엠〉의 작곡을

마친 직후 브람스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마음은 이제 위로받았다네.

결코 극복할 수 없으리라 여겼던 장애를 이겨내고 높이, 아주 높이 비상중이라네.”

경기필하모닉 애플루트 시리즈 I 〈성시연의 브람스〉

일시 3월 31일(금)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가격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C석 1만원

출연 지휘 성시연, 피아노 윤홍천,

연주 경기필하모닉, 국립합창단, 수원시립합창단

프로그램 브람스 독일레퀴엠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On Air

마이 발렌타인 스토리 II

사랑이 음악에게 속삭이다 경기필 발렌타인 콘서트

사랑하는 모든 순간에는 소리가 있다. '사랑해요'라는 발음하는 목소리, 그 시간에 흘러나오는 음악, 그들만의 은밀한 사랑 노래.... 사랑하는 모든 순간에 소리와 음악이 함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고 '고조'시키는 데 마법과도 같은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 아닐까. 2017년 2월 11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경기필의 발렌타인 콘서트가 열린다. 사랑을 더욱 사랑답게 할 일등공신으로 정나라 지휘자는 세상 모든 연인들의 곁을 지킬 준비를 마쳤다.



지휘하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콘서트

2월 11일, 경기필 발렌타인 콘서트를 이끌어 갈 정나라 지휘자는 벌써부터 가벼운 흥분과 설렘에 홍조를 띤 얼굴이었다. 2016년 한 해를 건너뛰고 2년 만에 열리는 발렌타인 콘서트를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갖가지 계획과 기대, 구상들이 온 마음을 꽉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발렌타인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기존의 콘서트를 많이 조사해 봤습니다. 성악가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거나 영화음악을 연주하는 등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의 콘서트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저는 음악가의 입장이 아닌, 사랑에 빠진 관객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은 이번 콘서트의 컨셉을 잡는 데 꼭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그런 행복한 고민 속에서 탄생한 〈마이 발렌타인 콘서트 II〉는 지금까지 선보여 왔던 그 어떤 발렌타인 콘서트와도 다를 예정이다. 정나라 지휘자는 경기필을 이끄는 지휘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할 DJ까지 두 벌의 옷을 동시에 입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관객들의 다양한 사랑을 알고 싶고 공감하고 싶다는 취지하에서 이번 콘서트는 특별히 관객들의 사연을 받고자 합니다. 각자의 사랑에 담긴 사연을 소개하고 그 이야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물하는 거지요. 사연에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밝힐 수 없는 이벤트도 현재 계획 중이에요.” 정나라 지휘자가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로 이번 콘서트의 컨셉을 설명한다.

음악, 사랑을 복돋다

평생을 클래식 음악을 해온 정나라 지휘자지만 그는 이번 발렌타인 콘서트는 참으로 각별한 음악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사랑에서 음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믿고 있는 로맨티시스트로서 그날, 그 자리의 음악들이 객석에 자리 잡은 수많은 연인들로부터 많은 감정을 이끌어내고, 표현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생 시절 베토벤의 ‘비창’ 2악장을 연습할 때면 꼭 울려왔던 한 여학생의 뽀뽀 소리를 지금도 가슴 설레게 간직하고 있는 그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사랑’, ‘마음을 드러내는 음악’은 지휘자로서, 피아니스트로서 더없이 소중했던 자양분이기도 했기에 ‘사랑’을 주제로 한 이번 음악회는 그에게 보석처럼 귀하다.

“이번 콘서트의 레퍼토리에 모차르트의 음악이 섞여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삶을 보면 천재의 이면 아래 참 굴곡 많고 힘들었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내인 콘스탄체를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요. 클라라에 대한 브람스의 사랑 역시 클래식 음악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제게 참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작곡가들이 음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과정은 제게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으니까요.”

사랑에 빠져 있는 시간, 지난 사랑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음악을 해왔다는 정나라 지휘자의 얼굴에서 광대가 기쁘게 솟아오른다.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모두를 꿈꾸다

정나라 지휘자는 발렌타인 콘서트를 위해서 관객과의 소통보다 먼저, 경기필 단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사랑이 주제인 음악회인 만큼 튀거나 역센 소리를 조율해 최대한 둥글게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사랑이 가진 색깔들... 뜨거움, 밝음, 잔잔함 등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원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단원들과 완전히 일치가 됐을 때 비로소 청중들과 대화를 하고 교감할 수 있으니까요.”

정나라 지휘자가 직접 사연을 소개하고 곡에 대해 이야기를 펼쳐 놓을 경기필 발렌타인 콘서트 My Valentine Story II에서는 그가 직접 엄선했던 영화음악과 클래식 음악들이 골고루 차려질 예정이다. 사랑 이야기와 음악이 함께 한다면 클래식 음악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 또한 허공에 흩어버릴 수 있을 거라며, 자신의 가야 할 길 중에는 클래식 음악과 대중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사명 또한 있음을 분명히 하는 정나라 지휘자의 얼굴에서는 지금까지의 보여준 아이와 같은 천진한 눈빛이 아닌, 반듯한 어른의 눈빛이 깊이 있게 빛난다.

“대중들이 어떤 지휘자로 기억해주길 바라냐고요? 편안한 지휘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카리스마나 권위도 중요하지만 저는 청중들에게 부드럽고 편안하게 다가가는 지휘자로 자리매김하고 싶어요.”

음악을 통해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는 정나라 지휘자. 그에게 이번 발렌타인 콘서트는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가장 아름다운 꽃길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경기필하모닉 <마이 발렌타인 콘서트 II>

일시 2.11(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초콜렛자리 3만원, 사탕자리 2만원

출연 지휘 정나라, 하모니카 박종성,

연주 경기필하모닉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경기도문화의전당
브랜드 공연
둘러보기 I

언제부터인지 포기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했던 20~30대부터 인생에 대한 고민을 숨기며 살아가는 40~50대까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내 마음 하나 보듬어줄 소통을 찾기 힘든 이 시대, 경기도문화의전당의 Book & Talk Concert 〈話양연화〉는 지친 현대인을 품는 따뜻한 아랫목과 같았다.



책과 음악으로
세상을 잇는 사랑방 시즌2

화 話양연화

BOOK & TALK CONCERT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만 볼 수 있는 브랜드 공연으로 지난 한 해 〈話양연화〉의 인기는 대단했다. 세대와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자리였기에 함께 한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긴 듯하다. 책과 음악을 사랑하는 기획자의 손길이 한 땀 한 땀 배였고, 바쁜 일상 속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 공연장을 찾은 관객을 아끼는 출연진이 있었다.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무대를 지켜봐 준 멋진 관객이 있었기에 그들이 함께 만든 〈話양연화〉의 여운이 그리 짙은가 보다.

〈話양연화〉가 시즌 2를 연다. 우리만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심플한 무대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무장한 채 사계절의 감성을 풀어놓는다. 봄날의 따뜻한 감성과 거짓말이라는 다소 아이러니한 관계를 논할 ‘봄의 거짓말(3.30)’, 여름날 청량한 사이다와 뜨거운 무더위 그 사이의 미지근한 농을 던질 ‘여름의 농담(6.27)’, 쌀쌀한 가을날 연인, 가족, 친구 등 각종 오해에 대한 의미와 극복 방법을 공유하는 ‘가을의 오해(9.28)’, 차가운 겨울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각자 간직했던 비밀을 풀어놓는 ‘겨울의 비밀(12.14)’로 관객을 맞이한다.

이번 시즌에서도 ‘시즌 1’ 성공의 일등공신인 영화평론가 이동진과 황경신 작가가 함께 한다.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다름을 따뜻하게 품는 이동진과 함께라면 밤새도록 나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싶을 터, 이번 시즌에서도 조곤조곤한 그의 매력이 기대되는 이유다. 황경신 작가 또한 ‘시즌 2’의 연출로 함께 한다. 시대와 현상을 덩뎅히 바라보고 그만의 특유의 감성으로 담아낼 무대가 기대를 모은다.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게스트 또한 만만치 않다. 첫 무대부터 영화감독 허진호를 시작해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관객들이 만나보고 싶었던 이야기꾼들이 대거 출동한다. 이러니 〈話양연화〉 팬들의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굿즈’ 또한 〈話양연화〉에서 빠질 수 없는 매력일 터. 이번 시즌에서도 관객의 마음을 훔칠 굿즈들이 공연에 소소한 재미를 더한다.

Book & Talk Concert 〈話양연화〉 시즌2

일시 3월30일(목), 6월27일(화), 9월28일(목), 12월14일(목)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1층 3만 3천원, 2층 2만 2천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경기도문화의전당 031-230-3440~2

경기도문화의전당
브랜드 공연
둘러보기 Ⅱ

신데렐라에게 마법이 풀리는 12시가 있다면,
경기도문화의전당엔 마법이 시작되는 11시
가 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도 아니며,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도 아닌 오롯이 나
를 만나는 〈브런치 콘서트〉. 목요일 11시, 잃
어버린 내 이름을 찾아준 이 마법 같은 시간
은 지난 6년간 관객과 함께했다.

Brunch concert

안녕?
달콤한 열한 씨!

경기도문화의전당 최장수 프로그램
〈브런치 콘서트〉의 이유있는 변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브런치 콘서트>가 올해 과감한 변신을 꾀한다. 대개 클래식 중심이었던 마티네 콘서트의 틀을 깨고 대중음악과 밴드, 토크콘서트 형식을 취하며 새로운 ‘시즌 2’를 여니, 좀 더 부드럽고 달콤한 브런치가 기대되는 이유다.

네 번의 목요일, 그 11시를 책임지는 ‘김종진’

눈에 띄는 건 한국 음악의 자존심인 봄여름가을겨울의 리더 김종진의 진행이다. 비틀즈와 카라얀을 좋아하며, 록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 대중음악계에 퓨전 재즈라는 낯선 장르를 안착시킨 그의 폭넓은 음악 기호(taste)는 자연스레 <브런치 콘서트> 시즌 2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 뿐이라! 진솔한 노랫말과 뮤지션의 순수함을 지켜온 그와 나눌 음악과 삶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내가 무엇을 하든 ‘브라보’를 외쳐줄 것만 같은 그에게서 잠시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아도 좋을 듯싶다.

‘가성비 갑’을 놓칠 수 없는 이에게 추천

1. 패키지 티켓 : 총 네번의 공연을 20%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2. 공연장에서 즐기는 ‘브런치’ : 5천원을 더하면 브런치까지 즐길 수 있다.

대중음악과 재즈, 클래식을 넘나들다

‘시즌 2’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백미로 김종진의 음악 절친을 꼽을 수 있다. 이름만 들어도 관객을 설레게 하는 김현철, 김광진, 한영애, 말로 등 실력과 뮤지션들이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찾는다. 이 외 성악가들과 클래식 앙상블의 무대가 이어지니 대중음악과 클래식, 재즈를 넘나드는 음악의 황홀경이 펼쳐진다.

독심 있게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지켜온 <브런치 콘서트>의 화려한 변화는 주부와 실버세대 뿐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무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날리며 재충전의 시간을 선물한다.

<브런치콘서트> 시즌 2

일시 4.20(목), 6.22(목), 9.14(목), 12.7(목) 오전 11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전석 2만원 (티켓), 2만 5천원(브런치 포함)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경기도문화의전당 031-230-3440~2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월드 투어

일시 2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11일(토) 오후 2시 · 7시,
12일(일) 오후 2시 · 7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출연 지킬&하이드_브래들리 딘, 루시_다이애나
디가모, 엠마_린지블리본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이것이 바로 월드 클래스다! 국내 창작진과 브로드웨이 최정상 배우들이 선보이는 완벽 그 자체의 무대. 114만 명의 열광,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이 새로운 감동을 안고 관객을 찾는다. 매혹적인 선율에 담긴 아름다운 스토리,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놓칠 수 없는 공연.



경기필하모닉 마이 발렌타인 스토리 II

일시 2월 11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초콜릿자리(1층) 3만원,
사탕자리(2층) 2만원

출연 지휘_정나라, 하모니카_박종성,
연주_경기필하모닉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나의 이야기가 무대에 오르다! 사랑을 꿈꾸게 되는 발렌타인 데이. 경기필하모닉이 당신의 사랑꾼이 되어 달달한 무대를 준비했다. 나의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가 이번 무대의 주인공! 가슴 깊이 묻어둔 나의 사랑이 영화음악과 클래식 선율에 담긴다. 사연에 채택된 나에게 프러포즈 이벤트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사랑을 이루고 싶은 이여~ 주목!



이은미 라이브 투어

일시 2월 18일(토) 오후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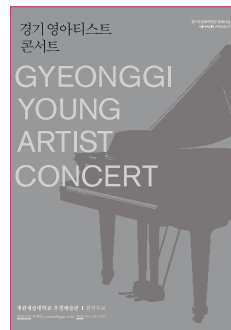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R석 11만원, S석 8만 8천원, A석 6만 6천원

출연 이은미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가수 이은미, 그녀를 수식하는 두 단어 'Live' 그리고 'Diva'. 30개 도시 라이브투어에 오른 이은미가 수원을 찾는다. 오직 무대, 라이브의 생생한 감동만을 고집하는 맨발의 디바가 들려줄 이은미표 발라드. 가수라는 말보다 아티스트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이 시대의 뮤지션, 그가 전할 위로의 시간.



경기영아티스트 콘서트 I

일시 2월 18일(토) 오후 5시

장소 계원예술대학교 우경예술관

가격 전석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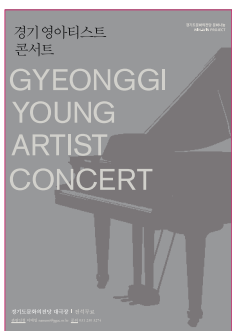
관람신청 nanumi@ggac.or.kr

출연 첼로_이동열, 지휘_정나라,
연주_경기필하모닉

프로그램 드보르작_첼로 협주곡 b단조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한국 클래식 유망주들의 꿈을 키우는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2017년 첫 콘서트로 첼리스트 이동열의 무대가 펼쳐진다. 경기필하모닉이 인정한 실력파이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음악적 안정감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 '이동열'. 첼로의 진심이 느껴지는 그의 무대를 지켜보시길.



경기영아티스트 콘서트 II

일시 2월 23일(목)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전석무료

관람신청 nanumi@ggac.or.kr

출연 피아노_하규태, 정지원, 지휘_정나라,
연주_경기필하모닉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_피아노협주곡 1번,
쇼팽_피아노협주곡 2번 f단조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2017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 피아니스트 하규태와 정지원을 만나본다. 2016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파란을 일으킨 하규태, 16세 나이가 믿기지 않는 성숙한 음색과 기교를 자랑하는 정지원의 무대다. 날로 자신만의 음악을 찾아가는 이들의 음악이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세계유명연주자 SERIES I 초량린 DUO TRIO

일시 3월 3일(금) 오후 8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가격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출연 바이올린_초량 린, 첼로_조영창,
피아노_이지원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_피아노 트리오 a단조 외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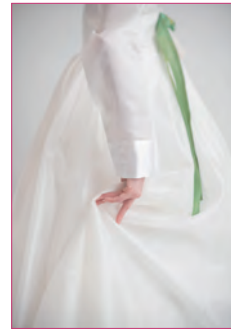
눈부신 테크닉, 순수하고 서정적인 음색을 지닌 바이올리니스트 초량 린,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음유시인이자 세계가 사랑한 첼리스트 조영창, 섬세한 표현력과 깊이 있는 해석이 돋보이는 피아니스트 이지원. 이들이 나눌 황홀한 음악의 대화가 당신을 기다린다.



세계유명연주자 SERIES II 초랑린 with 경기필

일시 3월 4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 7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출연 지휘_초랑 린, 연주_경기필하모닉
프로그램 비발디_사계, 브람스_교향곡 제2번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진정한 비르투오소와 경기필하모닉의 감동적 조우! 초랑 린의 무한한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무대다. 올해 스무 살 청년이 된 경기필하모닉의 어떤 면모를 이끌어낼지. 초랑 린과 경기필하모닉의 만남이 기대되는 이유다.



경기도립무용단 <판>

일시 3월 18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전석 1만 7천원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경기도립무용단이 춤판을 벌렸다. 태평무, 부채춤 등 도립 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공연에 변화를 꾀한 것. 한국 춤 본연의 매력은 물론이요 관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리를 입혔다. 더 이상 옛 것이 아닌 오늘날 우리의 몸짓이 되기 위한 신명의 춤판을 기대해보자.



경기도립국악단 교류음악회 일천년의 보물, 경기음악을 찾아서

일시 3월 22일(수) 오후 8시(예정)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전석 2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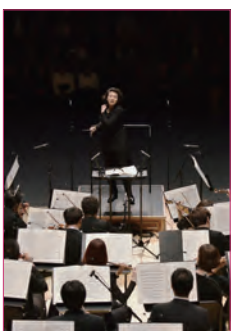
지난해 전국 6개 도립국악관현악단이 모여 발족한 <전국 도립국악단 협의회>, 경기도립국악단을 중심으로 그 첫 번째 교류음악회가 시작된다. 한반도 역사의 중심인 경기도, 올해로 천년을 맞는 경기도의 음악 형식 과정을 추적하는 흥미로운 소리 추격전이 펼쳐진다. 경기 천년의 음악을 집대성한 성대한 음악잔치를 기대하시라.



BOOK & TALK CONCERT 시즌2 <話양연화> 봄의 거짓말

일시 3월 30일(목)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1층 3만 3천원, 2층 2만 2천원
출연 영화평론가_이동진 외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시즌 2를 맞은 話양연화가 이야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심플한 무대와 따뜻한 감성을 품은 아날로그적인 무대로 찾아온다. 이번 시즌도 역시 이동진이 함께 한다.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따라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우리의 봄을 들여다보자.



경기필하모닉 애플루트 시리즈 I 성시연의 브람스

일시 3월 31일(금)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가격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C석 1만원
출연 지휘_성시연, 피아노_윤홍천,
연주_경기필하모닉, 국립합창단, 수원시립합창단
프로그램 브람스_독일레퀴엠, 브람스_피아노 협주곡 2번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최근 세계적인 클래식음반 레이블 '데카(Decca)'에서 국내 오케스트라 최초로 음반을 내며 주목받은 경기필하모닉.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은 경기필하모닉이 준비한 네 번의 '애플루트 시리즈' 중 첫 번째 무대이다. 음악비평가 한슬리크가 브람스 음악의 요체로 평가했던 '내면으로의 침잠'을 잘 보여주는 <독일레퀴엠>과 만난다.



이영란의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일시 2월 1일(수) ~ 3월 1일(수)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빛나는 갤러리
가격 아동 2만 3천원, 성인 1만 7천원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보들보들 부드러운 밀가루 세상이 찾아왔다. 자연 그대로를 담고 있는 이번 체험전은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자극한다. 밀가루로 그림도 그려보고 뿌리고 뭉치고 날리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무한 자극한다. 왜 국민체험전인지 꼭 확인해보시길.

2016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결산 리뷰

관객과 예술가의 동반성장을 실현하다

글 노승림 영국 위릭대 문화정책학박사, 음악 칼럼니스트

Young
Artist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장기 예술가 양성 프로젝트인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가 지난 12월 21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에서 갈라 콘서트로 2016년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갈라 콘서트는 젊은 연주자들의 재능은 물론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들의 '끼'와 '유머'마저 발산하는 흥미진진한 축제 마당이었다. 네 명의 피아니스트(김준호, 박진형, 정지원, 안민혁)가 다 함께 무대에 올라 연주하는 라비냐의 갈럽 행진곡 D단조라든가 맥 윌버그의 비제 '카르멘'주제에 의한 환상곡과 같은 음악은 흔히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다. 피아졸라의 〈망각〉과 〈사계〉 중 발췌곡 '봄'과 '겨울' (정지원, 이유진, 정우찬 협연) 연주 또한 탱고의 어법을 자유분방하고 유려하게 표현하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석 무료 공연이었던 이날 갈라 콘서트에는 출연자들의 지인들뿐 아니라 영재 연주자 발굴과 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는 물론 일반 클래식 음악 애호가까지 다양한 관심을 가진 청중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인지 출연자들의 연주력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이 연주한 음악 그 자체에 매료된 청중들이 많았다. 수능을 막 마친 딸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박상희 씨는 "음악이 사람의 영혼을 움직인다는 의미를 실감했다"며 "차세대 클래식 유망주들의 연주라 그런지 곡 해석에서 그들만의 매력이 돋보였다"라고 감흥을 전했다. 시흥시에서 찾아온 김세준 씨도 "젊은 클래식 아티스트들의 뛰어난 연주와 협연을 즐길 수 있었고, 개성 있는 젊은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청중들의 반응은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가 얻은 또 하나의 결실이라 볼 수 있다. 단지 무대 위에 서는 연주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음악을 들어줄 관객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대 위의 연주를 완성하는 마지막 요소는 다른 아닌 객석에 앉아 있는 관객이다. 그동안의 영재 프로그램이 커리큘럼과 교육에게만 집중되어 연주자 양성에만 치중되었던 반면, 경기 영아티스트 프로그램은 아티스트들에게 가능한 많은 실연 무대를 제공해왔다. 정식 독주회는 물론 경기 필과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도 제공했으며, 갈라 콘서트는 그동안 그들이 치른 연주회의 결산 무대였다. 뿐만 아니라 김남윤과 같은 한국 음악교육의 대모뿐 아니라 지안 왕, 핀커스 주커만, 바딤 레핀, 존 키무라 파커 등 1급 아티스트들과 1 대 1 멘토링 형식으로 진행된 마스터 클래스 또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물론 공연장과 상주 악단을 보유한 지자체의 이점을 활용한 결과였다. 덕분에 '영 아티스트'들은 단순한 연주 레슨 뿐 아니라 실전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관객들은 음악을 감상하고 무대 위의 영재들과 함께 호흡하며 음악을 배우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실제로 공연 일정이 공개되자마자 티켓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매진 사례가 이어져 주최 측을 놀라게 했다. 클래식 애호가들의 관심이 유명 연주자들의 무대가 아니더라도 음악 그 자체에, 또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전도된 현상이라 보이는데, 공연의 다양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무대에 오르는 젊은 연주자들에게도 좋은 보약이 되었다. 2015년 경기 영 아티스트 1기로 선발된 피아니스트 박진형은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 “저 같은 어린 연주자에게 정식 오케스트라 협연 기회는 흔치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독주회를



정우찬(첼로)

김준호(피아노)

정지원(피아노)

이유진(바이올린)

열어도 보통은 지인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주최해준 공연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 거라 더욱 실전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거의 모든 공연이 만석이어서 더욱 흥분됐고요.”

경기필과 함께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무대에서 연주한 박진형은 2016년 프라하 봄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같은 곡을 연주해 우승하는 결실을 얻었다. 박진형뿐이 아니다. 첼리스트 이동열은 2016년 루마니아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에서 본선에 진출했다. 피아니스트 하규태는 지난 11월 윤이상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2위에 입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안타깝게 우승은 내렸지만 이 대회에서 하규태는 매 라운드마다 일취월장하는 연주력과 독특한 개성, 그리고 여유 있는 무대 매너를 보여주며 아티스트로서의 존재감을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이처럼 2년 차에 이르러 연주자들이 벌써부터 국제적인 무대를 섭렵하는 등 경기 영 아티스트 시리즈는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며 타 기관의 영재 예술가 양성 프로그램들을 위협하고 있다. 2015년 문화 나눔 Win-Win 콘서트로 출발한 이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더욱 전문화되고 또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한 결실이다.

정책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경기 영아티스트 프로그램은 공연장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대안 콘텐츠로서 주목할 만하다. 완성된 예술가들의 무대를 청중에게 제공하는데 그쳤던 기존 공연장의 역할에서 벗어나 무대에 세울 연주가 양성에 직접 관여하고 그 성장과정을 관객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음악과 음악가가 완성되는 ‘과정’ 그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제공하는 이 사례는 국내에서는 도통 보기 드문 사례이다. 음악 레슨에서부터 무대와 관련된 실전 트레이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로 구성된 것 또한 지자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히 잠깐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신뢰를 가지게 만드는 요소이다. 경기필이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 또한 전략적으로 훌륭한 한 수다. 지역 악단이 정기 연주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재 양성 프로그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클래식 애호가гаа 아닌 일반 시민에게까지 그들의 공익성을 알리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혜를 입은 어린 연주자들은 물론 앞으로 오디션을 보고자 하는 전공생,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객석을 가득 메우는 일반 시민들은 경기 영아티스트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고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실내악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앙상블 연주를 좋아하는 연주자들과 청중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 같다”라는 박진형 군의 조심스러운 제안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독주자 양성에 치중해온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전문적인 현악4중주단이나 트리오를 양성하는 또 한 대의 인큐베이터를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숨어있던 실내악 청중들도 함께 찾아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 될지 과연 누가 아는가.



조수민(바이올린)

이동열(첼로)

안민혁(피아노)

박진형(피아노)

진실함과 순수함에서
시작된 거장성

첼리스트 조영창

올해로 창단 11년째를 맞는 ‘노부스 콰르텟’과 창단 6년째를 맞는 ‘아벨 콰르텟’ 덕분에 한국 클래식엔 긍정적인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솔리스트 위주의 음악에서 앙상블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요즘, 40여 년 전 이 땅에 실내악이 무엇인지 몰랐으며, 실내악이 거의 없었던 1970년대~80년대 우리나라에 트리오를 만들어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으며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린 피아노 3중주단 ‘조 트리오’의 의미를 다시 새겨본다. 피아니스트 조영방, 바이올리니스트 조영미, 첼리스트 조영창으로 이뤄진 ‘조 트리오’는 ‘정 트리오’와 함께 우리나라 가족 앙상블의 효시이기도 하다. 오는 3월과 4월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실내악의 매력을 전할 첼리스트 조영창. 무대 위 은발의 거장과 나눈 전화인터뷰, 수화기 너머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음악에 대한 진실함과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그의 거장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했다.

지난 한 해는 조영창에겐 특별한 의미가 깃든 해였다.

‘조 트리오’ 결성 40주년을 맞은 것. 이 나라에 앙상블이란 씨앗을 뿌려 오늘날까지 실내악 무대를 지켜온 그였기에 그 의미가 남달랐다. “작년 9월 ‘조 트리오’ 결성 4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를 가졌어요. 큰누나가 몸이 불편해 연주 대신 음악해설로 함께 했죠. 큰누나가 딸부자예요. 첫째 딸 민주가 피아노를 하는데 큰누나의 자리를 메워줬습니다. 누나와 연주를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민주와 함께 했기에 ‘할아버지-엄마-딸’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어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로 좋았죠.”

삼 남매로 구성된 ‘조 트리오’ 가족이기에 좋았던 점이나 반대로 남매여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는지 궁금했다.

“아버님(성악가 조상현)이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삼 남매는 자연스레 음악과 함께 자랐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통할 때가 많았죠. 하지만 아무리 남매라도 개성이 다르기에 음악을 표현함에 있어 다른 의향을 지닐 수 있어요. 근데 남남 일 때는 서로 예의를 지켜주잖아요. 저희는 남매이기에 조금 의견이 엇갈리면 음악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싸움이 번질 때가 많았어요.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셨다면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큰누나는 중립을 지켰던 것 같아요. 아마도 첫째로서 그랬겠죠. 작은누나는 굉장히 예민하고 말이 제일 많았고요. 저는 제일 게을렀네요. 누나들은 뭐든 참 열심히 했어요. 저는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마도 누나들과 함께하니 제가 나서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가족이기에 쌓여진 돈독한 팀웍 덕분에 첫 국제무대인 1977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 트리오 부문 2위에 오르는 쾌거를 낳았을 것이다.

조영창의 음악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아버지를 빼놓을 수 없다.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참 자상하셨고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음악을 하게 됐지만 자식들에게 음악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자연스레 우리가 음악을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아버지는 정말 음악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께선 ‘나는 타고난 목소리가 없다’고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그래서 진짜 열심을 다하셨지요. 아버지께선 슈베르트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슈베르트의 인상을 보면 보이잖아요. 학교 선생님같이 소박한. 아버지를 통해 음악을 사랑하는 자세를 배웠으며 무대의 화려함에 취하지 않는 법을 깨우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음악이란 깨끗하며 순수하고 소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의 음악은 복잡하지 않으며 단순 명료하여 관객의 마음에 선명한 감동을 새긴다.

그의 아버지에게 슈베르트가 영감을 준 것처럼 조영창에게도 슈베르트와 베토벤의 음악이 남다르다. “슈베르트와 베토벤은 참 흡사합니다. 다만 베토벤의 음악적 스케일이 더 클뿐이죠. 근데 두 분의 음악엔 조금이라도 가식을 찾아 볼 수 없어요. 너무 깨끗하고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물론 슈만, 브람스, 차이콥스키는 기가 막히지요. 하지만 그분들은 여러 감정적인 부분을 담고 있어요. 베토벤은 메시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청렴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식과 꾸밈이 없이 본연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베토벤처럼 그의 마음을 울리고 흔든 작곡가가 없었다. 그래서 조영창은 2001년 한국인 최초로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 녹음 음반을 남겼다.

슈베르트와 베토벤뿐만 아니라 지금의 조영창을 있게 한 소중한 인연들이 궁금해졌다. “살다보면 산속에 살지 않는 이상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중에서 원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본의 아니게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직업적으로 만나야 하는 사람도 있죠. 수많은 인연 중 저는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많은 선생님들을 잊지 못합니다. 국민학교 시절엔 방인수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데 여선생님이셨어요.



인사하셨지만 무서울 땐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셨죠. 어머니가 한 번은 학교에 불려가셨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셨대요. ‘영창이는 아단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두세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할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선생님이 절 잘 파악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잔소리를 하면 효과가 없는 아이였거든요. 제 마음이 설득되어야지만 움직이는 아이였죠. 그리고 저희 첫 첼로 스승이셨던 전봉초 선생님을 꼽을 수 있겠네요. 미국 유학을 떠날 때 제게 친필 편지를 써주셨는데 ‘조영창 군, 열심히 해서 금의환향하길 바란다’란 그 편지가 가슴 깊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난 로랜스 레서, 로스트로포비치 등 수많은 스승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만남 자체가 저에게 너무 소중하기에 다 기억할 수밖에요.”

여러 스승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만의 음악을 닦아 온 그는 독일 에센 국립음대와 연세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그에게 후배 음악가들에게 꼭 전수하고 싶은 한 가지를 꼽으라 했더니 역시 그답게 ‘진실함’을 말했다. “음악을 대하는 진실함을 갖추며 순수를 지키라고 하고 싶어요. 음악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유명세와 명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음악을 대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학생에게 전 기꺼이 저의 모든 것을 나눕니다. 입학시험을 볼 때도 전 꼭 말 한마디를 건네 봐요. 악기를 잘 다룬다고 해서 무조건 뽑질 않죠. 그 학생의 음악에서 나오는 진실된 마음을 보고 나서야 가르칩니다. 연주를 잘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감명을 주는 음악회는 일생에서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그의 음악이 오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진실함, 깨끗함, 순수함을 강조해온 그의 음악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을까. “40년 전과 오늘의 나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든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잖아요. 매일매일 거울과 마주하고 있으면 사실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제 자신은 잘 느끼지 못하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야 그 변화를 쉽게 눈치채겠지만 자기 자신은 그 작은 변화를 느끼기 힘들죠. 그래서 저의 음악이 어떻게 변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음악을 대하는 자세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야 음악이 좋으니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마음이 컸다면, 지금은 음악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내가 왜 음악을 했는지 그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음악을 구축했으며 거장이란 명성을 거머쥔 그이지만 지금도 음악에 대한 그의 고민은 끝이 없단다. 문득 거장의 연습 방법이 궁금해졌다. “곡 중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자신이 없는 곡들이 있어요. 곡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걸 어찌 풀어야 할지 막막한 거죠. 이는 테크닉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곡이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편하게 대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저만의 스토리를 곡에 입혀 그 음악과 교감을 나누죠. 남녀의 러브스토리라든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주로 등장하지요. 사실 그 이야기가 그 곡에 맞는지 틀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는 음악에 빠져드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40여 년 그의 음악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청중은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음악가들은 항상 청중을 필요로 합니다. 청중이 없다면 제가 음악 하는 의미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음악을 제 자신을 위해서 해요. 좀 더 좋은 음악을 만들고자 계속 도전을 하죠. 지금도 하고 아마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 수련의 과정을 거쳐 무대에 서보면 음악은 누군가와 나눌 때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청중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의 매력이 정말 크죠.”

음악 앞에 진실함과 순수함을 지키고자 지금도 자신의 몸과 마음 버리는 조영창. 이런 마음을 닮은 그의 첼로 선율에 그토록 많은 이의 마음이 울리는가 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들에게 빠질 시간

브래들리 딘 & 다이애나 디가모

이것이 월드클래스!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월드투어를 시작한다. 한국 창작진이 주가 되어 미국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함께하는 전무후무한 이 프로젝트에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쏠렸다. 이 돌풍의 축인 지킬 앤 하이드 역의 '브래들리 딘'과 루시 역의 '다이애나 디가모'. 브로드웨이의 열기를 한국으로 가져온 그들과의 만남을 들여다보자.

〈지킬 앤 하이드〉의 월드투어 개막 이후, 벌써 대구와 부산, 대전 세 도시에서 한국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공연 후기를 살펴보니 공연에 대한 열기가 상당하더라고요.

다이애나 디가모(이하 ‘다’) :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 대한 한국 관객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이정도 일 줄은 몰랐어요. 뜨거운 박수와 응원에 감사할 뿐입니다.

브래들리 딘(이하 ‘브’) : 브로드웨이 관객들과는 다르더군요. 공연 중에는 조용히 경청하는 듯했는데, 커튼콜 때 엄청난 환호를 보내주셔서 마치 록 스타가 된 기분이에요. 한국 관객들의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객석의 뜨거운 반응은 무대에 있는 배우들에겐 큰 자극제겠죠.

딘 : 관객의 에너지는 제 연기에 시너지 효과를 더합니다. 절 온전히 받아주는 관객이 있다는 것은 제 연기의 경계와 한계를 넘게 해줘요. 연기하면서 스스로 ‘과한 면이 있는 건 아닐까’라며 위축되거나 걱정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하죠.

다 : 집에서 멀리 떠나 세계 곳곳으로 월드투어를 한다는 것은 멋있어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문에 힘든 순간도 많지요. 브래들리가 말한 것처럼 무대 위에 섰을 때 관객들이 저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준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뮤지컬〈지킬 앤 하이드〉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 중 하나로 부담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다 :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가진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루시’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을지 겁났죠. 하지만 배우와 함께 호흡하며 공연에 몰입하는 관객들 덕분에 그런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브 : 한국에서 워낙 유명한 뮤지컬이라 캐스팅된 후 한국 배우가

연기하는 공연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봤어요. 하이드가 말없이 차분하게 서 있는 모습 등 정적이고 차분하게 연기하는 모습이 인상 깊어 참고해 공연했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좋아 다행이에요.

〈지킬 앤 하이드〉의 백미는 프랭크 와일드혼의 음악이죠. 그의 음악이 지닌 매력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다 : 저는 정식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대학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팝 가수를 하다 뮤지컬을 하게 된 입장에서 말하자면, 프랭크 와일드혼의 음악은 뮤지컬의 전형적인 넘버와 팝의 요소가 잘 가미되어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된 것 같아요. 또 정교하면서도 심플한 맛이 매력적이죠.

브 : 처음부터 끝까지 꼭 찬 선율이 아닌, 중간 중간 쉬어갈 틈을 주는 점에서 그의 천재성을 볼 수 있죠. 어떨 땐 심플한 멜로디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멜로디는 단순하고 명료한데 이와 달리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받쳐주니 한번 들어도 잊을 수 없는 풍성한 음악을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넘버가 궁금한데요.

다 : 제가 부르는 곡으로는 ‘당신이라면(Someone Like You)’이 좋아요. 이유는 이 노래의 음역대가 다양한데, 제 목소리와 가장 잘 맞아 배우로서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켜볼 때는 지킬과 하이드가 번갈아 등장하며 대립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대결(Confrontation)’이 좋지요. 브래들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저는 다른 장면 준비로 무대 뒤에서 의상을 갈아입는데, 의상팀장이랑 브래들리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출 정도예요. 사실 브로드웨이에서는 의상실 안에 모니터스크린이 장착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대 뒤에서는 무대의 모습을 볼 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모니터스크린으로 무대현장을 생생히 볼 수 있어 진짜 좋아요.

브 : 듣기 좋은 노래를 꼽으라면 ‘그의 눈 속에(In his eyes)’죠.

‘루시’와 ‘엠마’의 듀엣곡인데 듣고 있으면 감성이 충만해지는 기분이에요. 또 다이애나가 부르는 ‘새 인생(A new life)’도 빼놓을 수 없어요. 폭발적인 가창력이 완전히 노래에 몰입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제가 부르기 좋아하는 노래는 ‘지금 이 순간(This is the moment)’이에요. 이유는 음악으로써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맛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 관객들이 워낙 좋아하는 노래라 관객들의 환호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이애나가 보기에 브래들리 딘의 ‘지킬’과 ‘하이드’가 지닌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 지킬은 심성이 착하면서도 괴짜스러운 면이 있는 남자로 루시가 내숭이 아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하고, 하이드는 지킬과 반대되는 원초적인 매력을 지닌 남자로 루시가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다시 끌릴 수밖에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죠. 이 양극단의 인격을 브래들리는 참 탁월하게 표현해요. 순수와 악마사이를 그보다 잘 오가는 배우가 있을까 싶어요. 폭발적인 감정연기가 압권이죠.

그럼 브래들리는 어떤 ‘지킬’과 ‘하이드’를 표현하고 싶었나요.

딘 : 우선 지킬과 하이드는 감정의 폭이 넓은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감정을 분출하는 것에 끌리기 때문에 하이드의 과격한 부분에 빠져들기 쉬워요. 하지만 하이드라는 캐릭터 안에는 굉장히 예민한 감성의 씨앗 같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자라서 과격한 감정으로 표출되는 거죠. 저는 그 감성의 씨앗이 선함과 정직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연기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지킬은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거든요. 애초에 하이드로 변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됐죠. 그런 만큼 하이드를 연기할 때도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간직하며 연기하려 해요. 사실 하이드는 지킬이 예상하지 못했던 악한 인격으로 탄생했지만, 그의 뿌리는 지킬의 선한 마음에서 태어난 것이니까요.

지킬과 하이드는 양극단의 감정을 오가는 캐릭터입니다. 무대 위 허구일지라도 일상에 그 여파가 상달할 것 같아요.

브 : 처음 〈지킬 앤 하이드〉에 캐스팅됐다고 했을 때 여자친구도 저보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직접 연기해보니 노래나 감정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공연이 끝나면 완전 진이 빠져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겨를이 없어요. 무대 위에서 모든 걸 다 쏟고 나오니 녹초가 돼 일상생활에 그 여파가 미칠 여력이 없는 거죠.

루시의 매력이 무궁하죠. 브래들리가 보기에 다이애나의 ‘루시’가 지닌 장점은 무엇인가요.

브 : 루시는 클럽에서 일하는 여자로, 이런 캐릭터는 배우가 정형화된 모습으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다이애나가 연기하는 루시는 젊음의 생기로움과 어떤 의미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밝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굴하지 않으려 애쓰는 그녀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하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돋보이죠.

브래들리의 평이 마음에 드시나요.

다 : 네, 브래들리가 정확하게 잘 짚어줬어요. 루시가 겉으로는 강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여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천진하고요.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루시지요.

다이애나는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이죠. 어느 기사를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길 위해서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꿈을 이뤘는데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무대에 서고 싶은가요.



다 : 저는 늘 반짝이고 미는 별똥별이 아니라, 오랫동안 빛나는 은하수가 되고 싶어요. 때문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잘 하는 이 일을 오래도록 하고 싶고, 지금 제게 주어진 이 기회가 굉장히 귀중하게 느껴져요. 사실 몇 년 전에 영화 관련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안전하게 느끼는 영역에 간신히 걸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시다. 힘들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제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배우,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다이애나가 느끼는 무대 밖 브래들리가 궁금한데요.

다 :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지킬과 하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어야 연기를 하고 더 나은 배우가 될 수 있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평소시의 브래들리는 지킬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죠. 하지만 무대 위에서 하이드를 연기할 때는 의심할 여지없이 하이드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브래들리가 보기에 무대 밖 다이애나는 어떤 매력을 지녔는지 말씀해주세요.

다 : 다이애나는 친절함을 뛰어넘어 사랑과 감동을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이애나의 성격이 무대 위 루시를 표현하는 데에도 반영되어 관객들이 더 많이 사랑해주는 것 같습니다.

○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 무대에서 공연하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브 : 지구 반대편으로 와 공연을 올리며 언어의 장벽이 있다 해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통한다고 봐요. 열정과 마음을 다하는 진실함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모든 장벽을 뛰어 넘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죠. 무대 위 배우와 관객이 하나로 연결되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다 : 오랜 기간 월드투어에 나서니 비행기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감정들이 오갔어요. 어떤 걸 기대해야 할지도 몰랐고요. 막상

○ 한국에 와보니 다들 너무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좋았어요.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으니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과 안정감이 생겼죠. 먼 이국땅에서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기에 제 스스로도 놀라운 경험이에요. 브래들리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 서로 융합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시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짐을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이 귀중하네요.

새로운 시즌을 여는 이 때,
경기도문화의전당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올해,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나요?

관객
say

이미진 _ 공연모니터 활동가



“지난 한해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며 17개의 무대를 만났어요. 한 달에 한번 꼴로 전당 문지방을 넘나드니 어느 공연장보다도 더욱 애착이 가는 극장이죠. 경기도립국악단의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을 잊을 수 없네요. 사실 저에게 국악은 멀기만 한 장르예요. 그런데 ‘페르귄트 모음곡’을 국악으로 들으니 새롭고 신기했어요. 맑고 청명한 소금이 상쾌한 아침을 열더니, 거문고의 묵직한 울림은 오제의 죽음을 더욱 와닿게 했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국악은 선뜻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해설이 더해진다면 저 같은 국악 초심자들도 공연을 보다 쉽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경 _ 예술강좌 수강생

“10년 가까이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한국무용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일상의 피로를 풀고 나의 구석구석을 생기로 채워준 것이 이 예술강좌였습니다. 국립기본무, 퓨전춤 등 여러 작품을 배우면서 춤이 늘어가는 재미에 푹 빠졌죠. 안식년을 보낸 작년엔 설장구도 배웠네요. 오래도록 춤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경기도립무용단 선생님 덕분이예요. 도립무용단 선생님처럼 쉽고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우리 것의 매력을 전하는 것이 제 꿈이 되었답니다. 어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네요!”



윤건식 _ 소방사(양평소방서)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좋은 공연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하지만 거리가 먼 양평에서는 그 혜택을 누리기 쉽지 않죠. 소방공무원 중에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직원도 있고, PTSD까진 아니라도 현장출동 및 낮과 밤이 바뀌는 교대근무로 몸에 긴장과 스트레스가 뻥 채로 지내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직원들에게 음악은 훌륭한 치료법인데 ‘경기문화나눔31’을 통해 양질의 공연을 접할 기회를 얻는 건 정말 큰 선물이고 심리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올해 ‘문화나눔 31’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반기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공연을 만날 수 있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요? 여건이 된다면 연극, 무용 등 다양한 공연 모두를 만나보고 싶네요.”



쏘나 글래저 _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

“저는 삼성 글로벌 임직원 동교회(Samsung Global Employee Community) ‘삼글임회(SamGillmHwae)’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네팔, 독일, 러시아, 미국, 모로코, 인도, 캐나다, 폴란드 등 다양한 나라에서 모였지요. 저희 동아리에서는 10년 전부터 경기도문화의전당의 클래식 공연을 보러 다녔어요. 2년 전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를 처음 접했는데 이 시리즈를 정말 좋아합니다.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이 활약하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젊은 음악가들의 열정과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경기 영아티스트’는 클래식 애호가와 입문자 모두에게 멋진 경험을 선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아티스트 콘서트>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왼쪽부터 프리엠바다(인도), 베니아(폴란드), 마르친(폴란드), 쏘나(독일), 액타 판데 삼꼬따(네팔), 에밀(아르메니아)

예술단원 say

이찬우 _ 경기도립극단

“17년 전, 제 나이 마흔 살. 인생 2막을 준비하며 대학로에서의 20년 배우 생활을 접고 도립극단 단원으로의 삶을 시작했죠. 사실 입단 후 5년간은 좀 힘들었어요. 번듯한 극장에서 품 좀 잡고 싶는데 요양원과 시장, 군부대 등 경기도민의 일상 속으로 저를 내모는 거예요. 이 시기 배우라는 자존심과 국공립 단체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객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교감의 가치를 발견하면서부터 예술에 대한 저의 생각이 바뀌었죠. 화려한 극장에서 나와 시민 속에 녹아들어갔다고 해서 연극의 가치가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의 바람 역시 관객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작품을 올리는 것입니다. 모든 연극쟁이들의 고민이겠지만 어떤 무대이든 저희가 올리는 작품 안에서 많은 이들이 울고 웃었으면 하네요.”



이찬우 단원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 연극<헬로우>

한범희 _ 경기도립극단

“연극배우들은 한번쯤 영화나 TV 데뷔의 꿈을 꾸요. 운 좋게 KBS 공채 탤런트가 됐지만 6개월 만에 그 환상을 꺾죠. 현실이 녹록치 않았습니니다. 그 후 연기의 꿈을 접고 방황을 시작했어요. 2000년 한 선배의 경기도립극단 오디션 제의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다시 연기의 끈을 잡고 무대에 올라 오늘까지 관객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죠. 도립극단 생활에서 가장 좋은 점은 다양한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입단하기 전 제가 맡은 배역은 대부분 귀공자 역할이었지만 도립극단 안에서는 의외의 배역을 감당해야 할 때가 많아요. 러시아 연출가 알렉산드르 꾸진과 <미운오리새끼>를 할 때였는데 저에게 유아기 시절의 오리를 맡겼죠. 예전엔 상상도 못할 배역이지만 제가 제 자신을 넘어섰다는 잊을 수 없는 쾌감을 맛봤습니다. 올해도 제 틀을 깨는 다양한 연기 기대해주세요.”



연극 <미운오리새끼>에서 '아기 오리'를 연기한 한범희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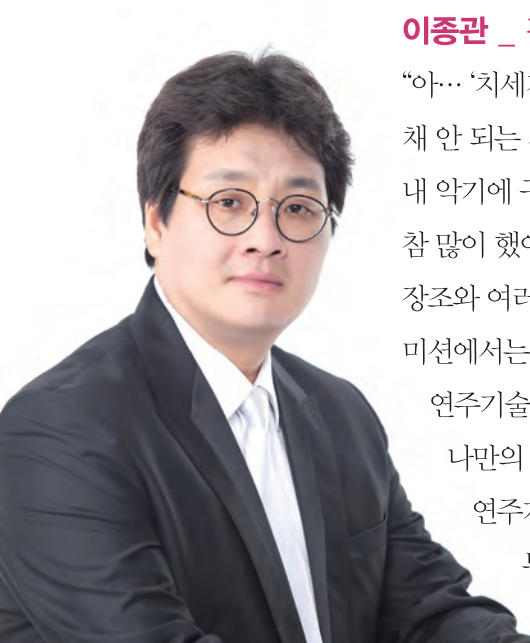




오복성> 다문화사회의 아픔과 희망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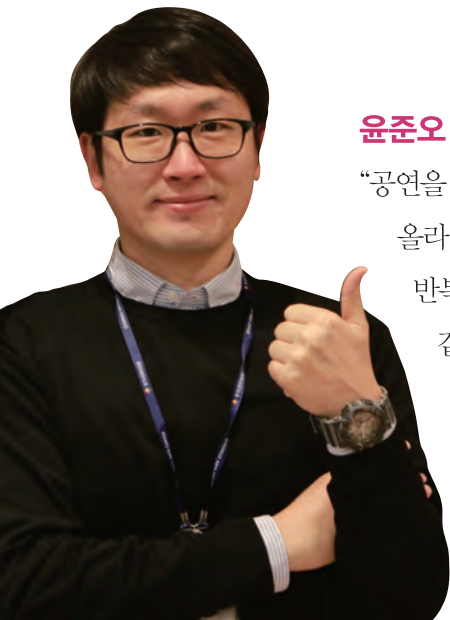
유은정 _ 경기도립국악단

“17년 전, 입단 당시 그 감격을 잊지 못해요. 거문고는 솔리스트 악기라 악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무엇보다 경기도립국악단의 일원이 된다는 자체가 큰 자부심이었죠. 내 음악의 결론을 여기서 내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작년엔 ‘치세지음(治世之音)’ 프로젝트’로 힘들었지만 뿌듯한 한해였어요. 국악관현악에 다양한 미션들이 요구되는 오늘날, 언젠가 우리가 해내야 하는 도전이기도 했죠. 작년 11월 그리그의 <페르균티 모음곡>을 올렸습니다. 거문고에는 없는 음정을 내게 하려고 안쪽을 바짝 당기거나, 다른 굽기의 줄을 써보기도 했죠. 도약하는 음을 소화하기 위해서 저만의 연주법도 개발했구요. 치세지음을 통해 거문고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간 시간이었고, 그 어려운 것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저 유은정만의 거문고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국악단 꼭 지켜봐주세요!”



이종관 _ 경기도립국악단

“아... ‘치세지음(治世之音)’ 그 어려운 걸 도립국악단이 해냈네요.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악기개량과 새로운 주법을 찾아내야만 했거든요. 내 악기에 구멍도 내보고 무언가를 덧붙여보고 모든 단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모든 악기 중 피리는 원래 단조 악기로 태생적으로 장조와 여러 조성을 오가며 연주하기엔 많은 제약이 따르죠. 이번 미션에서는 하나의 지공에서 네 개의 음을 내야했는데 정교한 연주기술을 요했지요. 내 손가락에 맞게 지공의 크기를 넓혀가며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큰 산을 넘어보니 저만의 연주기법도 갖게 됐네요. 올해는 ‘치세지음’ 2기가 시작됩니다. 부담도 되지만 새롭게 발견될 피리의 매력이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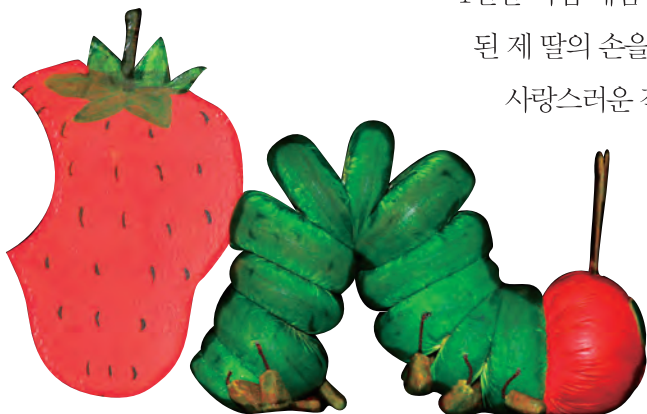
윤준오 _ 주임 (공연기획팀)

“공연을 기획할 때의 긴장감을 아실지 모르겠네요. 한 편의 공연이 무대에 올라 관객과 만날 때까지 저희 기획자들은 설렘과 긴장의 시간을 무한 반복합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는 다반사요, 공연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수가 정말 많지요. 하지만 이 일의 매력은 극장 문을 나서는 관객으로부터 발견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저희들은 관객의 표정을 스캔하기 바쁘죠. 맘에 드셨는지 별로였는지. 올해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찾아주신 관객분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어주실까요?”



김현중 _ 대리 (공연기획팀)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입사한지 갓 1년을 넘긴 지금, 이제는 저의 꿈을 조금씩 꺼내보고 싶습니다. 그 동안 이곳의 문화, 업무와 행정 절차를 익혀왔고, 공연기획팀의 팀원들과 밀접한 팀워크도 형성했죠. 무엇보다 전당을 찾는 관객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관객들을 웃게 만들고 감동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다양한 취향의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공연이라는 것을 소비하는지를 1년간 직접 체험하며 보아왔습니다. 제 소박한 꿈이 있다면 올해 8살 된 제 딸의 손을 잡고 즐길 수 있는 즉,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작품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요. 저희 공연장에 예쁜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 찬다! 상상만 해도 즐겁네요.”



권지애 _ 하우스매니저 (공연기획팀)

“많은 분들이 한 공간에 모여 다시 오지 않을 찰나의 순간과 감정을 공유하는 공연장은 정말 특별한 공간이에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공연관람 매너가 더해진다면 특별한 순간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예매 단계부터 입장연령 꼭 확인해 주시고 공연 시작 전 여유있게 도착하셔서 공연장을 천천히 둘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직업병인거죠? ㅎㅎ 저희 공연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그 날까지 저 또한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공연장에서 자주 뵈게요.”



이승헌 _ 주임 (안전시설팀)

“저희 공연장을 찾아주신 분들이라면 휴식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크셨을 거예요. 좀 더 편안한 공연관람이 되도록 돕는 게 제 일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죠. 그 아쉬움을 조금은 덜어드리고자 저희 광장에 휴게쉼터를 조성합니다. 파라솔과 의자를 설치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이며 푸드 트럭 존을 만들어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거예요. 공연이 없어도 멋진 휴식 공간과 맛있는 먹거리로 관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극장이 되길 바라죠. 사실 관객이 느끼는 감동은 공연 외에도 공연장이 뿜는 아우라와 주변시설에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20년도 넘은 오래된 극장이지만 저희만의 멋을 찾기 위해 조금씩 변화하는 전당을 지켜봐 주세요.”



오늘부터, 친근한 클래식

글 유윤중 동아일보 음악전문기자

클래식, 어렵죠? 고전음악에는 악기들의 조합과 숫자에 따른 여러 가지 연주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알면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찬찬히 소개하겠습니다. 등장하는 사람이 적은 것부터요.



뜻깊은 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음악가들을 초청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선 이는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 두 사람. 나는 기대에 차서 외쳤습니다. “멋진 교향곡 같은 거 연주해 주세요!” 그런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합니다. “두 사람으로는 교향곡 연주 못해, 바보!” 바이올리니스트는 웃으며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봄’을 들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피아니스트도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화음과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악기는 두 가지인데 왜 ‘바이올린 소나타’라고 소개했을까요? 아, 나는 ‘클알못(클래식 알지 못하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고전음악에는 악기들의 조합과 숫자에 따른 여러 가지 연주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알면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찬찬히 소개하겠습니다. 등장하는 사람이 적은 것부터요.

외로운 솔로 <독주곡>

먼저 <독주곡>이 있습니다. ‘외로운 솔로’라고 말할 때의 솔로죠. 이탈리아어로 ‘혼자’라는 뜻입니다. 독주의 대표를 꼽자면 역시 피아노 독주입니다. 피아노는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있고, 거기에 열 손가락으로 풍성한 화음도 붙일 수 있으니 혼자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제격입니다. 그런데 화음을 붙여 연주할 수 있는 다른 악기들도 있죠. 오르간이나 하프, 기타 등도 솔로 연주를 하기에 적당한 악기들입니다.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라면 어떨까요? 이 악기들도 ‘부분적으로’ 화음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두 현을 동시에 활로 긋는 중음(重音) 주법을 쓰기도 하고, 네 현을 순간적으로 획 그어 함께 울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건반악기나 하프, 기타처럼 풍성한 화음의 효과를 계속 이어가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런 ‘선율악기’ 들에는 대체로 건반악기 반주가 붙습니다. 모차르트 이후의 고전 낭만주의 작품이라면 대부분 피아노 반주죠. 그러므로 ‘바이올린 소나타’라고 하면 특별히 다른 표시가 없는

한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이중주(二重奏), ‘첼로 소나타’라면 첼로와 피아노의 이중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이나 첼로가 혼자 등장할 때도 있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악기들도 제한적이거나 화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역시 혼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무반주’라는 말을 붙여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무반주 첼로곡’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악기와 달리 플루트, 클라리넷, 호른 같은 관악기는 두 음 이상을 함께 연주할 수 없어 화음 표현이 한층 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관악기를 사용한 무반주 독주곡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중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혼자 연주해도 될 걸 왜 두 사람이 나올까요? 흠... 먼저 설명한 것처럼, 화음을 충분히 연주할 수 없는 선율악기들은 혼자 등장하기보다는 화음을 받쳐주는 피아노 등 반주악기와 함께 등장함으로써 한층 완벽하게 자신의 표현을 펼쳐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주곡이 한 사람의 독백이나 명상, 또는 설명, 어나운스먼트라면, 이중주는 두 사람의 대화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주고받고,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다른 목소리로 같은 선율을 이어가는 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의 솔리스트가 등장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음악 형식을 <실내악>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의 대화 <실내악>

실내악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아노와 같은 화음 악기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피아노가 두터운 화음을 맡아주기 때문에, 다른 악기들은 자신의 고유한 음색과 개성을 표현하는데 더 치중할 수 있습니다. 이중주 외에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가 호흡을 맞추는 ‘피아노 삼중주’ 등도 있습니다.

피아노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 화음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대체로 네 개 이상의 악기가 참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 ‘현악사중주’입니다. 바이올린 두 대와 비올라, 첼로가 각각 사중창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처럼 호흡을 맞춰 연주합니다. 여기 피아노가 가세하면 ‘피아노 오중주’라고 하죠. 현악사중주에 바이올린 한 대가 빠지고 플루트가 대신 붙는 ‘플루트 사중주’, 플루

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이 참여하는 ‘목관오중주’도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는 연주 형태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에서 너댓 사람 이상이 참여하는 실내악은 ‘대화’의 맛이 이중주보다 한층 더 풍성하게 묻어납니다. 이중주 이상이 ‘대화’라면 삼중주 이상은 ‘좌담’이라고 할까요. 물론 좌담보다 대화를, 대화보다 명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으니 어떤 형식이 더 좋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좌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실내악에서는 대체로 여덟 사람에서 열 사람 정도를 한계로 꼽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숫자가 저마다 자기의 목소리를 뽐내며 조화를 이뤄내기란 역시 힘든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시작 <합주>

“열 사람보다 많은 합주도 자주 보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더 늘어나면 중대한 차이가 생깁니다. 멘델스존의 현악팔중주를 예로 들면, 바이올린 네 사람, 비올라 두 사람, 첼로 두 사람이 각각 자기만의 다른 악보를 보고 연주합니다. 그런데 열 사람보다 많은 합주에서는 대체로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악보를 함께 연주하게 됩니다. 실내악을 넘어 <합주>, 즉 ‘오케스트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멘델스존의 팔중주 얘기를 했지만, 이 곡 정도 규모가 되면 소리가 때로는 실내악처럼 들리고, 때로는 오케스트라처럼 들립니다. 같은 선율, 같은 악보를 악기 하나가 연주하는 것과 둘 이상이 함께 연주하는 것은 소리의 크기를 넘어 그 질감(소노리티)이 바뀌거든요. 한층 화려하고 박력 있는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오케스트라’는 ‘관현악단(管絃樂團)’이라고 번역됩니다. 부는 관악기와 켜는 현악기가 모두 들어간 악단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관악기가 빠진 현악기만의 합주도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제1바이올린 파트, 제2바이올린 파트, 비올라 파트, 첼로 파트 연주자를 각각 두세 사람 이상 갖추면 ‘실내악단’ 즉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저음을 튼튼히 받쳐주는 콘트라베이스가 가세하면 더욱 완벽하겠죠. 아 참,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

보통 ‘오케스트라’는 ‘관현악단(管絃樂團)’
이라고 번역됩니다. 부는 관악기와 쉰
현악기가 모두 들어간 악단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관악기가 빠진 현악기만의 합주도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니다. ‘실내악단’에서 말하는 ‘실내’, ‘체임버 오케스트라’에서 말하는 ‘체임버(Chamber)’는 앞서 솔로 악기들의 조합을 뜻했던 ‘실내악’, ‘Chamber Music’과 개념이 다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실내악단’이 연주하는 음악은 ‘실내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역시 관악기가 들어가야 그 다양한 개성이 충분히 발휘되죠. 이제 진짜 <관현악>의 세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바이올린에서 콘트라베이스까지, 오케스트라에 등장하는 ‘쉰’ 현악기들은 음높이가 서로 다를 뿐 그 소리의 질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악기와 타악기가 가세함으로써 다양한 표정과 색깔, 개성을 갖춘 악기계의 ‘연기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화려하면서도 부드러운 플루트, 아련한 오보에, 매끈하면서도 고독한 클라리넷, 고소한 질감의 바순, 구름같이 배경을 채워주는 호른과 튜바, 씩씩하고 남성적인 트럼펫과 트럼본, 천둥같이 울리는 팀파니….

사람들은 흔히 관현악단, 오케스트라를 ‘가장 완벽한 악기’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고요한 적막부터 질풍노도 같은 격정까지, 인간의 희노애락과 모든 감정을 그려낼 수 있는 최고의 음악적 표현 수단이라는 거죠. 수십 명에서 백 명 이상에 이르는 연주자들이 지휘자의 지휘봉 끝 아래서 하나의 악기처럼 울립니다. 오늘날의 대편성 관현악단은 대체로 하이든 직전의 이른바 ‘전(前) 고전주의’ 시대에 독일 만하임 음악가들에 의해 형태가 갖춰나가기 시작했고 모차르트, 베토벤, 바그너를 거치며 그 완성된 형태에 이르렀습니다. 거

의 모든 교향곡들과, 관현악으로 시적 정서를 표현하는 ‘교향시’ 등이 이런 대편성 관현악단을 위해 작곡되었고, 오페라 반주도 대편성 관현악단이 맡습니다.

끝으로 <협주곡>을 설명드려야 하겠네요. 오케스트라와 독주악기가 때로는 대비되고, 때로는 융화되면서 소리를 맞추어나가는 형식이 협주곡입니다. 독주악기를 한층 부각시키기 위해 대체로 규모를 약간 줄인 오케스트라가 출연합니다. 바로크 시대 협주곡의 경우 대체로 관악기가 빠진 현악기만의 합주가 반주부에 사용되었습니다.

애민愛民과 풍자諷刺를 이야기하다

2017년 경기도립무용단 시즌 공연 살펴보기

글 이경희 작가 / 지문 최진욱 경기도립무용단 상임안무가 / 참고 문화재청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는 그릇이다. 태평성대가 찾아오면 예술은 그에 걸맞은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우고 시대가 불안하면 예술은 몸을 낮추거나 드높여 닥친 분노와 불안, 긴장을 직설적으로 혹은 에둘러 표현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병신년이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고 정유년 붉은 달이 찾아온 지금, 경기도립무용단 2017년 시즌 공연으로 '백성을 위한 애민의 춤'과 '백성의 춤'을 무대에 올릴 준비를 마쳤다. 춤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춤으로 현실을 풍자한 백성들의 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미리 만나보자.

백성을 위한, 백성에 의한 춤 그리고 태평무

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인간의 육체를 표현 매체로 삼아 사상·감정·감각·정서 등을 율동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 가장 오래된 예술 중 하나로서 시공간을 초월해 사랑받아온 춤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국적과 연령, 신분, 언어를 초월해서 전파한다는 점에서 과거 신분이 명확히 나누어졌던 시대에도 각자의 계급에서 즐기고 누린 도락 중 하나였다. 궁중에서 추는 춤과 저잣거리에서 추는 춤이 모두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마다 이야기를 자기들만의 영역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나갔고 ‘놀이’라는 포장을 씌으로써 타계급의 경계와 주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춤은 당연히 무대에 서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달라지는 장르이다. 우리 전통 무용 안에 백성을 생각하고 위하는 애민의 춤과 양반을 희화하고 풍자하는 백성의 춤이 함께 뿌리를 내려 나가갈 수 있었던 것도 전하는 메시지와 영역의 대상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경기도립무용단이 2017년 무대에 올릴 태평무(太平舞)는 왕과 왕비가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내용의 애민의 춤이다. 20세기 초반 무용가이자 명고수였던 한성준이 경기 무속 춤을 재구성하여 추었던 춤으로 알려져 있는 태평무는 1988년에 뒤늦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그 화려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태평무는 그 도입부부터 지켜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화려한 복식을 갖춰 입은 왕과 왕비가 나오고 춤이 진행되면서 화려한 용포를 하나씩 벗어간다. 간소한 복장으로 손에 착용하는 무복인 한삼을 끼고 춤을 추기도 하고, 다시 맨손으로 추기도 하는 등 복식 및 도구가 다양하게 변주를 거듭함으로써 관람객의 시선을 잡아채는 것이다.

태평무의 특징은 무엇보다 무용수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만 무대에 올라 출 수 있는 춤이라는 사실이다. 한삼에 가느다란 스틱을 끼고 추는 태평무는 기본적으로 살풀이와 승무를 완



벽하게 체득하지 않으면 출 수 없으며 특히 화려하고 현란한 스텝은 어지간한 프로 무용수들도 진땀을 흘릴 만큼 난이도가 높다.

춤 장단은 진쇠, 터벌림, 도살풀이 등으로 다른 춤장단에 비해 구성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이 장단에 따라 겹걸음, 잔걸음, 무릎 들어 걷기, 뒤꿈치 짝기, 앞꿈치 꺾고 뒤꿈치 디딤 등 그 디딤 또한 현란하다. 일반 춤에서는 앞꿈치를 많이 쓰는데 태평무에서는 뒤꿈치를 써야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무용수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보이는 것을 천하게 여겨 손바닥, 발바닥을 많이 보이지 않게 하는 한국 무용의 특성 안에서 태평무는 정적인 호흡 안에 많은 동선을 그리고 다니는 우아함을 보여준다.

최진욱 상임안무가는 이러한 태평무를 두고 “복잡한 장단을 따라가는 것과 몸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난이도의 기교가 필요한 춤”임을 강조한다.

진주검무의 진수를 만나다

백성을 위한 춤을 이야기할 때 진주검무를 또한 빼놓을 수 없다. 1967년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진주검무는 대궐 안 잔치에서 추던 춤 중 하나로서 검무는 궁중무용에서 가장 오래된 춤 중 하나로 꼽힌다. 660년 신라시대부터 고려까지 여성들이 가면을 쓰고 추었으며 조선조 초기까지는 기록에서 사라졌다가 순조 때 다시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진주검무의 유래는 두 가지이다. 신라인들이 나라를 위해 죽은 소년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추었다는 것과 왜군 적장을 끌어안고 함께 죽은 논개의 열을 달래기 위해 진주기생들이 칼춤을 춘 데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진주검무는 칼춤답게 매우 역동적이고 움직임이 크다. 도드리장단과 느린 타령, 빠른 타령에 맞추어 무사복을 입은 8명의 무용수가 2줄로 마주 보고 선 채 양손에 색동천을 끼고 칼을 휘두르며

춘다. 춤사위의 종류도 다양하다. 한삼을 끼고 무릎을 굽혀 도는 숙은사위, 앉아서 추는 앉은사위, 허리를 앞으로 엎었다가 뒤로 제치며 빙빙 도는 연풍대가락, 맨손으로 팔을 펴는 손사위 등 많은 동작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칼을 휘두르면서 악기처럼 소리를 내는 것도 진주검무를 더욱 풍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현재의 진주검무는 당시 진주감영(진주시청)에 속해 있던 교방청 기녀들에 의해 전승되던 춤으로 궁중 기녀들이 낙향하여 관청 기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진주검무는 연출 형태나 칼 쓰는 법 등이 궁중에서 열렸던 검무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검무를 추는 무용수들에게 가

장 어려운 점은 바로 칼을 돌리는 것이다. 칼날이 앞뒤로 왔다갔다 오가면서 날이 서 있지 않더라도 버선코처럼 올라가 있는 날에 찍혀 무용수들이 연습 중에 피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

최진옥 상임안무가는 검무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진주검무 이수자를 직접 모셔 레퍼토리화함으로써 프로그램 영역을 더 넓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현실과 싸우는 문동북춤과 자연을 닮아 있는 농악

‘백성이 추는 춤’은 ‘애민의 춤’보다는 그 영역이 훨씬 크고 넓다. 표현에 있어서 왕족이나 귀족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거칠 것이 없는 저잣거리 문화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덕분이다. 탈을 쓰고 추는 탈춤은 백성들의 춤을 대표할 만한 장르이다. 탈을 쓰고 내가 아닌 타인을 표현하는 이 춤은 양반을 풍자하고 현실을 비틀며 민초들에게 웃음과 위안을 줌으로써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춤이다.

그중에서 경상남도 고성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성오광대놀이 중 제1과장 문동북춤을 들여다보자. 문동북춤은 문동탈을 쓴 양반의 이야기다. 양반으로 태어났지만 조상의 죄로 천민보다도 못한 나환자 신세가 되어 쌀을 주워다가 손으로 뺨아서 가루를 내어 먹고 뭉툭한 손가락으로 북채도 제대로 쥐지 못하는 비통한 처지의 양반이 주인공이다.

최진옥 상임안무가는 “극 자체가 굉장히 애잔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라며 “다른 이들의 죄로 인해 상처 받은 민중, 그 아픈 몸으로 어떻게든 다시 현실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하는 민중과 닮아있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한다. 극의 말미, 나병에 걸린 양반이 결국 각고의 노력



끝에 북가락을 잡아내 똥똥 신나게 북을 치며 희망과 의지를 다지는 이 1인극은 극적인 느낌을 생생하게 살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악 역시 빠질 수 없는 백성의 춤이다. 농사일을 할 때나 명절 때, 흥을 돋우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향토 음악인 농악은 자연의 소리를 상징하는 타악기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 곳곳에 울려 퍼져왔다. 뿔과리는 천둥과 번개, 북은 땅과 구름, 장구는 시간과 공간, 징은 바람을 상징하며 이는 천지 음양오행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우리네 민족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왕이나 양반이 시키지 않아도 천지만물과 조화를 이루며 어떻게든 땅을 일구고 자연에 감사하며 살아보려 노력하는 민중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농악은 흥겨움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네 마음을 울린다.

무대에서 시대를 만나다

마지막 백성의 춤으로 살펴 볼 진도강강수월래는 원무 형태의 무용과 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춤이다. 정월대보름이나 한가위같이, 달 밝은 때 부녀자들이 한데 모여 손을 잡고 빙빙 원을 그리며 추는 이 춤은 전라남도 목포, 무안, 해남, 영광, 장흥, 순천, 화순 등 해안 일대와 완도나 진도 같은 섬에서 주로 추었다. 그 유래는 다양하게 전해져 내려온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적군에서 우리 숫자가 많아 보이게끔 군사놀이로 창안했다고도 하고, 마한 시기부터 전해져 내려온 가장 오래된 민속춤의 하나라고도 한다. 둥근 원형을 그리며 추는 것이 달을 맞이하고 추수를 감사하는 의식에서 나왔다고도 하며,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 온다'는 뜻에서 강강수월래(强羌水越來)라고 불리었다는 구전도 있다.

강강수월래는 많은 지역에서 추는 춤이지만 춤의 기운이 많이 발생하는 진도에서의 강강수월래는 재미난 구성이 눈에 띄는 무용이다. 전쟁 와중에 남자들을 돕고 마을을 지키기 위한 애국애족의 정신에서 점차 유흥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 간 것. 흔히들 강강수월래는 '강강수월래'라고 외치면서 빙글빙글 도는 것만 연상하는데 원을 그리는 것 이외에도 골반을 우스꽝스럽게 움직이거나 손뼉 치기, 발치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동작들이 많아

보는 이들의 흥을 돋우는 데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춤은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는 춤을 만들어낸다. 폭풍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누구도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지만 민중들은 아픈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마지막에는 다가올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로 성큼성큼 나아간다. 결국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민중이고 상처입어도 끝끝내 다시 일어서는 이 시대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민중의 것이라는 의미다. 뭉그러진 손으로 기어코 북채를 잡아 똥똥똥 북을 울리며 기어코 자신을 북춤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는 문동북춤의 주인공처럼 말이다.

최진옥 상임안무가는 춤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했다. 살아있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걸 표현함으로써 생명력을 만드는 그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2017년 경기도립무용단 시즌 공연은 그러한 생명력을 지닌 채 객석의 관객들과 같이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열과 혼이 담긴 작품으로 새롭게 선보일 것이다.

무대에서 만나는 우리 시대, 오롯이 지켜온 우리 것의 아름다움, 그것들을 만날 시간을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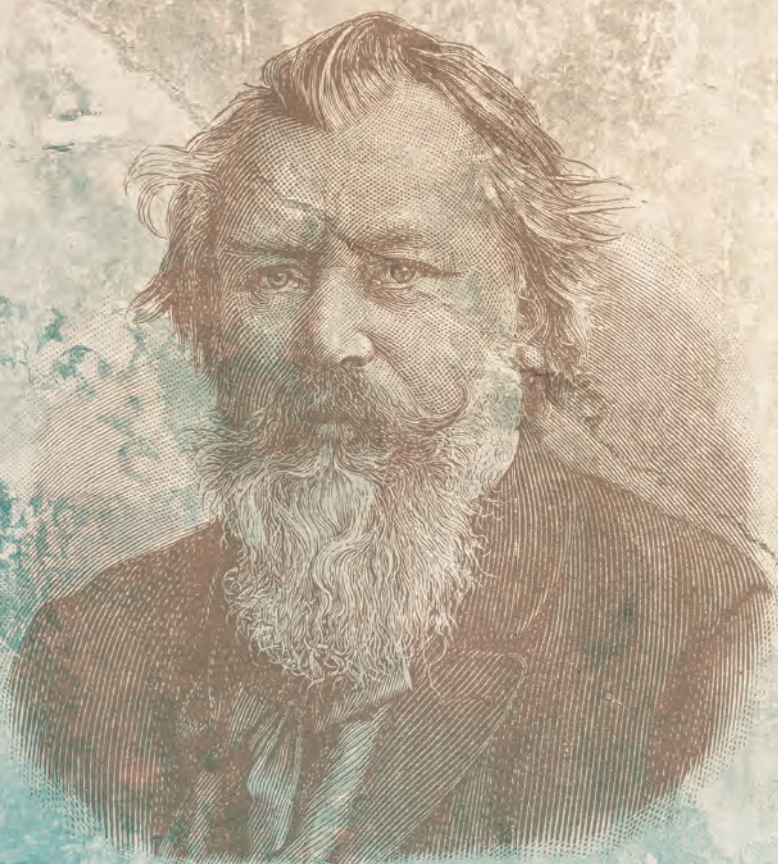
諷刺

삶, 죽음

그사이의 예술

글 강명석 문화평론가

대학을 잠시 쉬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로 기억한다. 부모님에게는 학비를 모아보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원하는 헤드폰을 사겠다는 목표가 더 컸다. MP3 파일 같은 것이 없던 시절 가방 안에 미니 CDP와 20여장의 CD가 담긴 파우치를 넣고 다니며 음악을 듣던 시절이었으니, 그 고생이 헛되지 않게 좋은 헤드폰이 필요했다. 그리고 복학할 즈음의 어느 날, 지하철을 타며 새 헤드폰으로 CD를 들었다. 그 때였다. 음악이 가슴을 후벼 판다는 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저 헤드폰의 음질을 확인해보려 했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몇 장의 클래식 앨범 중 한 장을 틀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깊고 어두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음악이 눈에 보인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했던 그 음반. 칼 뵘이 지휘한 모차르트의 <레퀴엠>이었다. 망자에게 보내는 진혼곡. 모차르트의 일생을 소재로 한 영화 <아마데우스>의 중요한 소재이기도 했던 <레퀴엠>은 이전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깊고 거대한 세계였다. 그 때부터 클래식은 많이 듣지 않아도 레퀴엠은 조금씩 들었다.



요하네스 브람스(1833~1897)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모차르트부터 베를리오즈, 뮤지컬의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레퀴엠까지. 지휘자로는 갈 뵘, 필립 헤레베헤, 그리고 당연히 카라얀도. 왜 그렇게 레퀴엠에 관심이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죽음은 우리 중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에, 역설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동안 쌓은 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소재라는 것은 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에 표현된 그 깊고 어두운 무엇이,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곡을 써내려가던 그의 심경과 관련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3월에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이 기억에 남는 것 역시 그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브람스가 10여년 사이 자신의 스승 슈만과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한 심경을 담은 그의 레퀴엠은, 죽음에 대면한 사람이 아닌 남겨진 사람의 이야기다. 특히 그는 슈만의 아내 클라라의 오열을 보고 레퀴엠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레퀴엠은 자신의 어머니가 죽은 뒤 자신도 같은 슬픔을 느낀 뒤에야 완성됐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타인의 죽음을 접하는 이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담긴 레퀴엠은, 그 자체로 인간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브람스가 레퀴엠에 근심과 고통에 잠긴 영혼에 대한 위로를 위한 곡을 하나 추가한 것은 그가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시선일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나 살아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내 주변에 다가왔다. 그 때의 두려움과 슬픔을 넘어, 그것을 딛고 다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죽음에 대해, 타인에 대해 이해하며 만든 레퀴엠은 그 자체로 인간에 대한 기록이자 하나의 작은 우주라 해도 좋을 것이다. 브람스는 레퀴엠을 통해 죽음이라는 숙명이 인간을 얼마나 깊은 고찰로 이끌 수 있는가 증명했다. 그리고 브람스 외의 많은 예술가들이 죽음을 통해 자기 자신을, 주변인들을, 사회를 돌아봤다.

LIFE AND

죽음은 수많은 예술 작품 속에서 다뤄지고, 모든 것의 종결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단순히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누군가의 죽음은 이야기의 끝을 의미한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했던 tvN <도깨비>에서 죽었다가 도깨비로 부활해 1000여년을 살아온 김신(공유)은 '도깨비 신부'가 자신의 가슴에 꽂힌 칼을 뽑으면 이승을 뜰 수 있다. 오랜 시간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온 김신은 어서 '도깨비 신부'를 만나기를 바랐지만, 정작 '도깨비 신부'가 나타나자 그와 사랑에 빠지며 이승을 뜨는 것에 대해 고민한다. 신에 가까운 존재마저 세상에서 사라질 순간이 오면 그 결정에 대해 고민하고, 다시는 못 볼 사람들이 눈에 밟힌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일 것이다. 죽는 사람이나, 남겨진 사람이나 죽음은 무겁게 다가온다. 그러나 당연하면서도 놀랍게도,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반드시 죽는다. 또한 그 중 누군가는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장진 감독의 영화들은 죽음의 이런 면모를 통해 희비극을 보여주곤 했다. 그의 데뷔작 <기막힌 사내들>과 <킬러들의 수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곤 했다. 개인의 비극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는 웃음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순간. 그의 영화 중 <아는 여자>는 초반에 아예 교통사고를 당해 죽는 여자가 주인공과 시선이 마주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길을 지나다 누군가 죽는 순간을 본다. 그 찰나의 순간, 죽어가는 사람과 바로 그 옆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서로를 스쳐간다. 정말 사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 장진 감독이 <아는 여자> 1년 후 살인 사건의 수사 과정을 생중계하는 <박수칠 때 떠나라>를 연출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너무나 흔하게, 예상치 못한 시점에,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 여자의 죽음을 파헤치는 수사 과정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얹혀있는데 이어진다. 한 사람의 죽음은 때로는 어이없는 이유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필연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에는 그에 얹힌 수많은 사람과 사회의 맥락들이 연결 돼 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는 한 여학생의 자살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준다. 그 죽음 역시 죽음이 멀지 않은 할머니의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여학생의 자살 밑에 있는 세상의 문제들이

TO DIE

먹먹하게 다가온다. 어떤 자극적인 연출도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이창동 감독은 한 사람의, 특히 영화 속 지역 사회에서 가장 약자의 입장에 놓인 죽음 아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보여준다. 이것은 어떤 죽음을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우연에 의한 죽음은 있을지라도, 어떤 이유도 없는 죽음이란 없다.

SBS <사인>은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부검을 통해 진실에 다가서는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연구소 사람들은 죽음 사람이 세상에 남긴 흔적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종종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진실은 왜곡되고, 때로는 부검 과정 자체를 방해 받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죽음의 이유를 밝혀 망자의 한, 살아남은 사람들의 한, 더 나아가 사회에 맺힌 한을 풀려 한다. 한 사람의 죽음은 흔히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죽음은 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뉘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이 유독 빛나는 이유 중 하나도 그가 살아남은 사람이 저야 하는 죽음의 무게를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 사람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오는지, 그는 10여년의 세월을 걸쳐 고민한 끝에 죽은 이를 기억하고,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한 자신의 감정을 풀어놓고, 스승의 죽음에 슬퍼하던 그의 아내를 이해하며 위로했다.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직면한 이를 바라보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 살아남은 사람이 레퀴엠과 같은 숭고함에 다다르기도 한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옛날 단테의 <신곡>부터 시니와 허노의 웹툰 <죽음에 관하여>까지 사후 세계를 다루며 상상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역시 사후 세계를 한국 신화의 세계관을 통해 다룬 주호민의 웹툰 <신과 함께>처럼, 죽음은 작품 속 천국과 지옥을 보며 산 자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죽은 이의 사인을 통해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죽음에 대한 고민은 산 자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과도 같다. 그리고 그 시작은 브람스가 그러했듯이, 죽음에 대한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는 사회는 결국 많은 레퀴엠이 묘사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욱 무서운 곳이 될테니.

예술과 만남에 보내는 메시지

이 페이지는 독자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페이지입니다. 편집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 예술생활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 등 자유롭게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magazine@ggac.or.kr

조성경 수원시 권선구

〈예술과 만남〉 12, 1월호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습니다. 윈터 페스티벌에 소개된 공연, 경기도문화의전당의 1년을 돌아본 인터뷰, 2016년 문화계 소식을 다룬 칼럼까지 이 책 한 권에 전당 소식은 물론이요 전반적인 문화계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더군요. 읽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네 가지 코드로 살펴본 윈터 페스티벌은 독특했습니다. 내가 공연에서 얻고자 하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친절하게 ‘로맨틱’, ‘정’, ‘열정’, ‘해학’으로 나누어 짚어주니 공연을 고르기에 수월했던 것 같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터뷰’도 재밌었습니다. 지난 1년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어떻게 달려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 전당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전당 스태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기획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공연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기획자들의 속마음을 읽는 재미가 컸습니다. 그 소감을 읽고 나니 그들이 맡았던 공연들이 사뭇 달리 보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온 부분은 ‘2016 문화계 결산’이었어요. 이 한 권의 책으로 지난 한 해 문화계를 돌아본다는 의미가 컸습니다. 이 칼럼을 보면서 우리 문화계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마음으로 문화계를 바라봐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2017년에는 어떤 〈예술과 만남〉과 만나게 될지 기대가 큼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경기도문화의전당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연극, 무용,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궁금하거든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소식 많이 들려주세요.





3만원으로 누리는 30만원의 혜택

구분	내용	할인받은 금액(원)
초대	예술단공연 20,000원x4매	80,000
예술단공연	평균관람가 20,000원x평균할인률 30% = 6,000원(6,000원 x 4회 x 2인 = 48,000원)	48,000
할인 기획공연	평균관람가 65,000원x평균할인률 20% = 11,000원(11,000원 x 4회 x 2인 = 88,000원)	88,000
대관공연	평균관람가 70,000원x평균할인률 10% = 7,000원(7,000원 x 4회 x 2인 = 88,000원)	56,000
주차	공연 관람 시 무료주차 x 18회 x 2,000원	32,000
할인받은 금액 계		304,000

※초대권은 문자로 안내해 드리며 문자 수신 후, 전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혜택

구분	종류	연회비	할인받은 금액(원)
개인회원	일반	30,000원	초대 - 경기도립예술단 정기·기획 공연 초대권 연 4매 제공 할인 - 경기도립예술단 정기 기획·공연 및 정당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티켓 구매시 10~30% 할인 (공연당 할인 매수 4매)
	골드	50,000원	초대 - 경기도립예술단 정기·기획 공연 초대권 연 4매 제공 할인 - 경기도립예술단 정기 기획·공연 및 정당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티켓 구매시 20~50% 할인 (공연당 할인 매수 6매)

공동 혜택

공연할인의 경우
일부공연 제외될 수 있음

- 격월간지 <예술과만남> 우편발송
- 주차요금 면제(카드소지, 공연관람 시)
- 교육프로그램 '예술가꿈' 강좌 수강료 5% 할인
- 전화, 인터넷 예매수수료 면제
- E-mail, SMS 문자 뉴스레터 발송

가입 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연중 수시 접수
기 간	회원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
가입방법	웹회원 가입/로그인 후 아트플러스 회원가입(오프라인 및 단체회원의 경우 전화 문의)

문의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담당

TEL 031-230-3242 FAX 031-230-3469 EMAIL artplus@ggac.or.kr

※회원 안내 및 기타 회원 관련 모든 문의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회원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아트플러스회원 모바일 카드 이용안내



예술과만남 NEWS

1 경기도문화의전당 'GREEN 캠페인' 진행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극장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12월 19일과 26일 양일간 효원공원 일대에서 'GGAC GREEN 캠페인'을 펼쳤다. 극장 주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소통하는 다양한 방안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 예술진로탐색 프로그램 <Hello! Artist>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에 따라 예술진로탐색 프로그램인 <Hello! Artist>를 12월 19일에 진행했다. 예술가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경기도립예술단과 함께 예술진로 탐색에 나선 것. 이날 원천중학교 21명의 학생들이 경기필하모닉의 <송년음악회> 리허설 현장을 방문했다. 정나라 부지휘자와 경기필 단원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외 오케스트라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3 성시연 예술단장, 올해의 공연예술가상 수상

경기필하모닉 성시연 예술단장이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에서 주관하는 2016년 '올해의 공연예술가상'을 수상했다. 국내 최초 국·공립 오케스트라 여성 예술단장으로 2014년 1월 취임 이후 뛰어난 기획력과 통솔력으로 경기필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았다.



국내 첫 기록 경기필하모닉 '데카'서 음반 발매

4

성시연 예술단장이 이끄는 경기필하모닉이 국내 오케스트라로는 최초로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데카'에서 음반을 발매했다. 성시연 지휘자의 첫 앨범이자 경기필하모닉의 첫 정규 앨범으로 말러 교향곡 5번 음반을 출시한 것. 이 연주는 지난 8월 개관한 롯데콘서트홀에서 녹음한 첫 음반이기도 하다. 이 음반에 프로듀서 마이클 파인과 음향 엔지니어 최진이 함께했다.



내 꿈을 지켜라 경기-삼성 Dream 어린이 합창단 '감성교육' 펼쳐

5

삼성전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경기-삼성 Dream 어린이 합창단 감성교육 2탄 <내 꿈을 지켜라>가 지난 1월 9일부터 2월 17일 까지 경기도내 34군데 아동센터에서 실시된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사회 배려 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으로 합창 수업 뿐 아니라 연극을 이용한 감성교육을 펼친다.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표현력,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연극놀이가 진행된다.



세계적 거장 초량 린, 마스터 클래스 연다

6

바이올리니스트 초량 린이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찾는 가운데 2월 27일 오후 5시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연다. 한국 클래식의 미래를 키우는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의 일환으로 클래식 유망주와 세계적 거장의 만남이 성사된 것. 초량 린의 재능기부로 성사된 자리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초량 린의 모든 것이 전수되는 시간 젊은 음악도에게는 값진 배움의 자리다. 사전 이메일 신청(nanumi@ggac.or.kr)을 통해 무료 청강이 가능하다. 문의: 예술단문화나눔팀 031-230-3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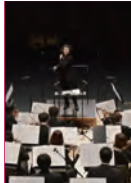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02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03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04 대 3D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소 온드림양상블 정기연주회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05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06	07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08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09 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월드 투어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10 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월드 투어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11 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월드 투어 소 경기필 마이 발렌타인 스토리 II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12 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월드 투어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13	14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15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16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17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18 외 [계림예술대] 경기 영아티스트 콘서트 I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19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20	21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22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23 대 경기 영아티스트 콘서트 II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24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25 대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26 대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27	28 갠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대 대극장 소 소극장 갠 빛나는갤러리 갠 소담한갤러리 흥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꿈 꿈꾸는컨벤션센터 썬 썬큰무대 신 신나는아외극장 외 외부공연

아트플러스회원 초대 가능 공연 | 경기필하모닉 〈마이 발렌타인 스토리 II〉

아트플러스회원 할인 가능 공연 |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월드 투어, 경기필하모닉 〈마이 발렌타인 스토리 II〉, 이은미 〈라이브 투어〉,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액션콘서트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갤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02	03 외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초랑린 DUO TRIO 	04 대 초랑린 with 경기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스 경기도립무용단 <판> 
19	20	21	22	23	24	25 스 가족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26 스 가족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27	28	29	30	31 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경기필하모닉 애플루트 시리즈 I <성시연의 브람스> 	

대 대극장	소 소극장	갤 빛나는갤러리	갤 소담한갤러리	총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꿈 꿈꾸는컨벤션센터	썬 썬크무대	신 신나는야외극장	외 외부공연
아트플러스회원 초대 가능 공연		초랑린 with 경기필, 경기도립무용단 <판>, 경기필하모닉 애플루트 시리즈 I <성시연의 브람스>						
아트플러스회원 할인 가능 공연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초랑린 DUO TRIO, 초랑린 with 경기필, 경기도립무용단 <판>, 가족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경기필하모닉 애플루트 시리즈 I <성시연의 브람스>						



티티안(Titian)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초량린의 바이올린
누구나 꿈꾸는 명기(名器), 1715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다.
300여년 시간의 숨결과 비르투오소의 탁월함이 빛어내는 아름다움
붉은 빛 머금은 황홀함이 펼쳐진다.

티티안(Titian)이란 이름은 이 악기를 거래했던 프랑스의 딜러가
악기의 오렌지 빛 붉은 색이 화가 티티안(1490-1576)의 작품을 연상시킨다하여 붙여졌다.